



[뉴스] 돼지장기가 사람 몸 속으로 이종이식 내년 '첫 발' 02



코스피	1964.65 (+4.40)	코스닥	615.96 (+8.95)
금리 (2년 국채)	1.16 (+0.06)	환율 (원/달러)	1202.50 (-5.80) (21일)

삼성페이 뜨자 '애플 신용카드' IT공룡, '남의 땅'서 진검승부

IT업계,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경쟁 삼성페이 국내간편결제 80% 점유 남미·미국 등서 사용량 급격 늘어 애플도 아이폰 전용 신용카드 선포



삼성페이는 일찌감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페이 캡처



애플카드. 애플 페이지에 입력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비교>

	결제서비스	결제 방식	특징	암호화폐
	삼성페이	NFC+MST	소비 분석, 투자 추천 등	탑재
	애플페이	NFC	페이먼트 넷지	공식지원
	LG페이	NFC+MST	최근 미국 진출	준비중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애플페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카드는 수수료가 없고 오히려 캐시백 프로그램 '데일리 캐시'도 제공한다. 사용액 연체분에 대해서만 연 12.99~23.99% 이자를 물린다.

아이폰 전용 카드인 셈이다. 앞서 애플 페이는 카드에서 0.03~0.15%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생태계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애플카드는 애플 페이지 사용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스마트폰 시장 침체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구독 서비스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는 상황, 보급에 필수적인 아이폰 사용자를 붙잡아 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페이가 애플 페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페이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누적 사용금액도 40조 원을 넘어섰다. 남미와 미국 등지에서

도 사용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기술을 탑재해 기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다. 따로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해외에서도 사업자나 사용자들 선호도가 높다는 후문이다.

페이 서비스는 단순히 결제뿐 아니라 금융 관리 서비스로도 발전하는 모양새다.

애플카드는 '페이먼트 넷지' 기능을 통해 카드 할부시 이자를 계산해주고,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알려주는 등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페이는 일찌감치 소비 분석과 금융계좌 관리를 제공해왔으며, 최근

에는 금융상품 추천과 외화 환전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발을 넓혔다.

결제도 시작했다. 미국 모바일 결제 업체 다이내믹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MST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해 MST 기능을 자사 단말기에 탑재해왔다. 다이내믹스는 2008년 루프페이의 기술을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양사 소송전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간 대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G페이가 바로 다이내믹스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물가도, 수출도 마이너스... 수축경제 시작됐다

1 7월 생산자물가 작년비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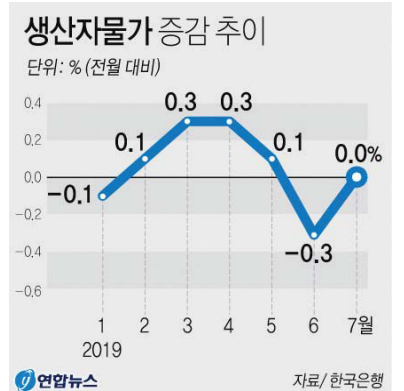
전년동월비 2년9개월만에 하락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작년 7월에 비해 0.3% 내렸다.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은 2년 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55(2015=100)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작년 7월과 비교해서는 0.3%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10월(-0.1%)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농림수산물 가격이 4.5%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8.3% 떨어진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적었지만 올해는 폭염이 상대적으로 덜해 그에 따른 영향도 적었다"며 "국제유가가 약세로 돌아선 것도 전년 동기 대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월 대비로는 농림수산물은 0.1% 하락했다. 일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난 참외(-29.9%), 피망(-46.1%), 마늘(-15.0%), 고구마(-20.5%)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0.4% 떨어졌다.

축산물도 돼지고기(-2.0%), 소고기(-0.7%) 등을 중심으로 0.7% 내려갔다.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9% 올랐다.

공산품 가격도 0.1% 떨어졌다. 수요 부진 등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0.5% 하락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김희주 기자 hj89@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2년 9개월 만에 하락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최근 가격하락이 이어진 양파가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 8월 수출도 감소... 9개월 연속 ↓

반도체 등 부진에 13.3% 줄어 對中 20%, 對日 13.1% 감소

8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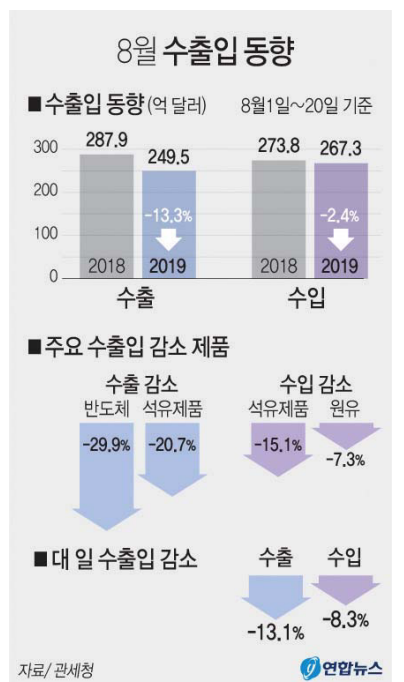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49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와 같은 14.5일이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8월 월간 수출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8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9.9% 줄었고 석유제품(-20.7%), 자동차 부품(-1.6%) 등이 감소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57.5%), 승용차(8.0%), 선박(179.7%) 등은 증가



했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20.0% 감소했고 우리나라와 무역분쟁 중인 일본의 경우 13.1% 줄었다. 1~20일 수입은 267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석대성 기자

대학 보유 특허기술 사업화 쉬워진다

정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예외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잠재력이 높은 대학의 기술과 특허를 산업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에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반기에 완화한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5년간 면제받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지주회사(1곳)와 자회사(4곳 내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브릿지플러스) 수행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산학 간 기술사업화 동반관계를 강화한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주요 기업과 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주선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 구축한다. 이 조직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스마트 서비스·플랫폼 혁신과 관련한 의제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돼지장기가 사람 몸 속으로... 이종이식 내년 첫 발 댈다

김성주 제넨바이오 대표 간담회

장기이식 대기환자 하루 5명 사망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 계획 공개

내년 돼지체도 형질전환 임상 2024년 시장규모 53조원 전망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 이식하는 '이종이식'을 연구 중인 제넨바이오가 원스톱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을 갖추겠다는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김성주 제넨바이오 대표는 21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종장기의 원료 돼지 개발부터, 이종이식 제품, 실제 이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업 방향과 임상 계획을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제넨바이오는 만성적인 이식장기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미니 돼지



김성주 제넨바이오 대표이사 21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넨바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손영민 기자 son@

의 장기를 형질전환해 인체에 이식하는 이종장기를 개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글로벌 이종장기 및 인공장기 시장은 연평균 7.33% 성장해 2024년 448억달러(약 53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특히 이종장기는 재생의료 중에서도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연구 분야로 전문가들은 이종 피부, 이종각

막 및 이종체도가 수년 내 제품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 센터장이자 현재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5년 이식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신장 이식만 2500례 이상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여러 사람들이 이식을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

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다"며 "형질전환 기술이 발달하면서 돼지 장기를 사람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제넨바이오 대표로 취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넨바이오는 오는 2020년 미니돼지의 체도를 형질 전환해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바이오이종개발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현재 국내 이종장기 이식 관련 법제도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단은 연구성과들이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현재 환자 대상 이종체도 및 각 장기 이식 임상은 지난해 국제이종이식학회 윤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7월 박 단장과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 연구팀을 대거 영

입하며 연구개발의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제넨바이오는 사업단의 무균돼지 이종체도 임상을 이어 받아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1만3000여평 부지에 건립될 제넨코어센터(GCC)와 제넨형질 전환센터는 형질전환 돼지 양산시설, GMP등급의 이종장기 제조시설 등을 아우르는 종합 R&D 센터로 2020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제넨바이오는 이종장기를 직접 생산하고,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병원까지 확보해 원스톱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엄청난 장기이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균 형질전환 미니돼지의 양산 관리와, 각종 장기에 적합한 형질전환 기술, 돼지 장기의 영장류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인체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해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을 갖추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스피 사흘째 상승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0포인트(0.22%) 오른 1,964.65에, 코스닥지수는 8.95포인트(1.47%) 오른 615.96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공채 줄이고 수시채용 늘린다

하반기 상장사 699곳 채용 조사

67% '대졸신입 채용' 11% '채용안해'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공채는 감소한 대신, 수시채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채용 규모가 줄고 채용 방식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준생들의 대기업 취업 전략 수정도 필요해 보인다.

21일 인크루트가 상장사 699곳의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개채용은 56.4%, 수시채용은 24.5%로 집계됐다. 1년 사이 공채는 11.2% 감소한 대신 수시채용은 12.7% 증가했다.

먼저 상장사 66.8%는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했고, 11.2%는 '대졸신입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채용여부가 미정'인 곳은 22.0%에 달한다.

채용 방식(복수선택)으로는 '공개채용'(49.6%), '수시채용'(30.7%), '인턴후직원 전환'(19.6%) 순으로 공채 선발이 절반 수준인 가운데, 기업 규모별 공채 계획은 '대기업'(56.4%)이 가장 높

고, '중견기업'(54.4%), '중소기업'(42.0%) 순이다.

대기업만 보면 지난해 공채가 67.6%에서 올해 11.2% 포인트 줄어 1년 사이 꾸준히 감소세다. 대기업 3곳 중 2곳 꼴로 공채 모집을 해왔다면, 올 하반기엔 대기업 2곳 중 1곳으로 공채 계획이 축소된다.

반대로 올 하반기 대기업 수시채용 계획은 24.5%로 전년(11.8%)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대기업 4곳 중 1곳은 수시채용이 확실시된다.

앞서 올해 초 현대차그룹이 신입사원 공채 폐지 발표 이후 지난 7월 SK그룹과 KEB하나은행이 공채 규모 축소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9일~8월 14일까지 27일간, 상장사 2221곳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699곳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대기업 186곳, 중견기업 164곳, 중소기업 349곳이다.

/한용수 기자 hys@

근로자 1명 고용비용 대기업 631만원 vs 중소기업 427만원

고용부, 2018 기업체 노동비용

1인당 월평균 비용 520만원
전년 502만원 보다 17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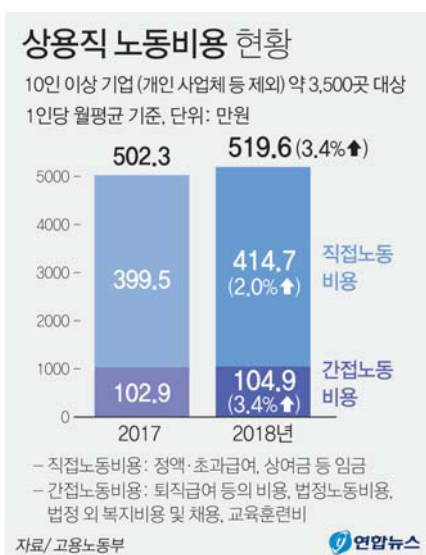
지난해 기업에서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들어간 월 평균비용은 519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차이는 203만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6000원으로, 전년(502만3000원)보다 3.4%(17만2000원) 증가했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27만9000원으로 전년(407만9000원) 대비 4.9%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631만6000원으로 전년(622만2000원) 대비 1.5% 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고용에 든 비용 차이는 203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7.7% 수준으로, 전년(66.6%)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이 67.7% 수준인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줄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규모 간 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

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

사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1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고 간접노동비용은 10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로, 전년(79.5%)보다 다소 높아졌다.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은 20.2%로 전년(20.5%)보다 낮아졌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 여가 33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76만3000원으로, 0.7% 늘었다.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은 5.6%, 법정의 복지비용은 3.8% 증가했다. 채용관련 비용과 퇴직급여는 각각 1.9%, 1.4%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의 월평균 노동비용이 881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보험업 877만3000원, 제조업 592만2000원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경비·청소를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의 노동비용은 255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음식업은 335만3000원이었다.

/손영민 기자 son89@

2030년 에너지소비 14%이상 감축

정부, 승용차 연비 향상 등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때까지 승용차 평균 연비를 1당 28.1km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를 환급해주며,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효율 방안이 실시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에

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질적인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原單位·TOE/1천달러)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세수호황 마감 속 520兆 슈퍼예산 논란... 여야 '긱간싸움'

역대 최대 예산 편성에 기초 고수 내주 당정 협의 거쳐 예산안 발표

기업 덕에 이어졌던 '세수호황'도 올해를 기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초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수입은 줄고, 지출 폭은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쓴 만큼 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10조~52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6~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초 확정된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도 최소 7.3%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이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로 점차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확장은 역대급이다.

여권은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경기 부진을 이유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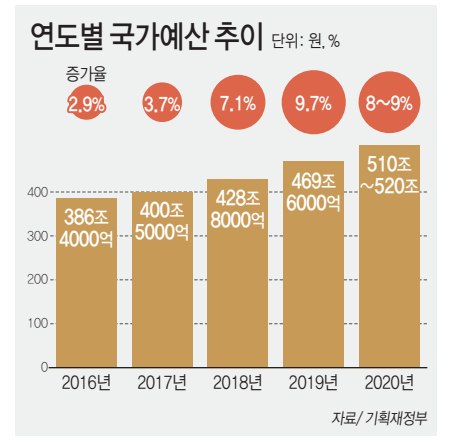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 재정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을 위해 선 재정 확장이 절실하단 의견이다. 하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는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앞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발표하며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늘었던 법인세 실적이 줄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세입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국세는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큰 폭 늘어나지 않으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도 역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내년 재정수입 규모가 5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 중인 510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인 셈이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

과하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3년 연속 5%를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년 수준으로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1명 구성을 완료하면서 당정(여당·정부)은 다음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



재 결산에 들어간 국회는 이번 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다음주 당정 발표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학계는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 4.7조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혁신성장 2030 전략 투자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6대 분야에 올해보다 45% (1조5000억원) 늘어난 총 4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AI(인공지능) 등 'D.N.A'라 명명한 3대 분야에 1조7000억원을,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주요 추진 과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데이터·AI'에 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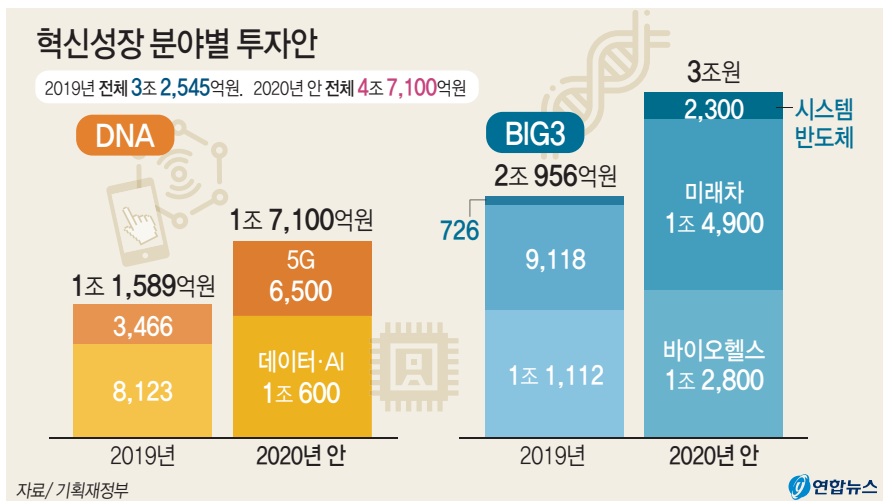
정부는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고 판단, 내년에 올해보다 31% (2500억원) 많은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추진에 72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

AI 학습용 정보,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가 신성장의 기반인 분야 등에서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전체의 34%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 확대, 인재 육성 등 AI 혁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신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19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도입하고, AI·데이터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에 2300억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까지 이른바 '빅3 신산업'에 내년 3조원을 투자한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빅3 신산업'을 집중 육성

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는 올해보다 229% (1600억원) 늘어난 2300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개발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 분야 관련 기술 위주로 시스템반도체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공공 나노랩 등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 핵심 IP(지식재산) 개발·보급 등 반도체 개발의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사무공간,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팹리스 설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의료의 바탕이 되는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하고, 신약·의료기기, 헬스케어·질병 치료 선진화를 지원하는 데 투자를 집중한다.

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대 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석대성 기자

정부·유관기관 힘모아 中 小수출 총력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회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중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두루 참여했다.

또 협의회에선 코트라 특별일반포괄허가(ICP)기업 활용확대 방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체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중진공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기관별로 다양한 일본수출 규제 대응 방안이 나왔다.

부산과 대전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선 유관기관의 비상대응반(중진공, 수

은, 기·신보 등)은 물론 지자체의 비상 대응체제와 연결하는 '통합수출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신속하고 종합적인 피해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수출위기 대응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협업해 최초로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수입 원·부자재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참여기업에게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연계해 구매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페이 서비스 넘어 비트코인 기능까지 확대

>> 1면 '삼성페이 뜨자...'서 계속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MST 기술 사용을 밝혀왔는데도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삼성페이가 성공했다는 반증아니겠냐"며 "양사 기술이 다소 달라서 다 이내믹스가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LG페이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효과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이 서비스뿐 아니다. 스마트폰 업계는 비트코인 지갑 기능을 단말기에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10부터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고 있으며, LG전자도 '쌍유 월렛'이라는 상표를 출시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지난해부터 마곡 본사에서 '마곡 커뮤니티 화폐'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청원게시판 도배한 조국논란 靑 ‘가짜뉴스’ 비공개 처리

조국 사퇴·딸 학위 취소 등 청원 쇄도
靑 “중복·명예훼손 경우 임의 삭제”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목소리가 거세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을 비공개 결정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부정입학 논란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청원 글이 조 후보자와 후보자 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비공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학위)취소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20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6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었다.

글쓴이는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복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원 글이 비공개돼도 ‘조국 사퇴’ 목소리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학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주세요!’ 글이 비공개 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경험하신 학부모님들과 여러 정보에 의하면 입시비리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다.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고발을 통한 사퇴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전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은 총 6건이다.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각각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 변제 면탈’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靑 “언론제기 의혹, 검증 거칠 것”

‘조국 논란’ 입장 밝힌 청와대
증거없는 ‘가짜뉴스’ 속아내야
청문회서 자료입각해 검증될 듯
김상조 “지금은 불법, 당시엔 아냐”

청와대가 ‘딸 장학금-논문’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입을 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오전 한국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 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한국당, 조국 딸 ‘입시 특혜의혹’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지금까지 확인한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명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간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검찰의 명예를 위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게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2학년 재학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다. 이를 가지고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5년 만에 예타 통과

사업비 5.7조... 2022년 말께 착공
추진 중인 A·C노선과 시너지 기대
KDI에 민자 적격성검토 여부 신청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마침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이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

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

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GTX-B는 총 5조 7351억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km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 GTX의 노선을 놓는 사업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곧바로 국토부는 이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사업은 필수적으로 민자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

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GTX-B의 통과로 일단 GTX 3개 노선은 모두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이미 2014년과 2018년 예타를 통과해 A노선의 경우 작년 12월 착공됐고, B노선은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GTX-B의 경우 2014년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0.3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으로 힘겹게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GTX-B 예타 통과와 함께 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 수도권 광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앞서 추진 중인 GTX A,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밀레니얼세대 금융 주 소비자로... 디지털 채널서 성패”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JP모건 채이스 차별화된 전략 전개 미국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ROE달성

국내도 특화 상품·서비스 운영 필요

전 세계에서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7년 사이 출생한 세대)가 금융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특화 상품·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JP모건 채이스가 2016년부터 밀레니얼 세대를 주요 타겟고객으로 규정하고, 이전 세대와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한 결과 올 상반기 미국 4대 대형은행 중 가장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소비’ 중시 밀레니얼 세대

연구소에 따르면 JP모건은 밀레니얼 세대가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아



〈세대별 인구수 및 리테일 소비 추정 (2014년-2020년)〉

세대 (출생년도)	2015년 인구수	성인인구 중 비중	2014년 리테일소비	2014-2020 CAGR	2020년 리테일소비	2020년 소비 비중
Millennials (81-97)	75.4mm	31%	\$600B	15%	\$1.4T	30%
GenX (65-80)	66.0mm	27%	\$1.4T	4%	\$3.3T	70%
Boomers (46-64)	74.9mm	31%	\$992B			
Silent (before 46)	28.0mm	11%	\$214B			

(단위: B=Billion, T=Trillion)

/자료=JP Morgan Chase

전체 금융상품 중 신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혜택 중심의 카드 상품인 ‘사파이어 리저브(Sapphire Reserve)’를 출시해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카드 포인트와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및 예금상

품을 개발해 상품 판매를 확대했다.

실제 JP모건은 사파이어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자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해 밀레니얼 세대의 참여를 늘렸다. 이어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스포츠이벤트·콘서트 조기 입장권 제공 등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혜택을 더해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 밀레니얼 세대 겨냥 디지털 채널 강화

연구소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채널 운영 차별화를 JP모건의 또 다른 성공 전략으로 꼽았다. JP모건은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활용해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로서의 디지털 채널을 강화했다.

JP모건은 모바일뱅킹앱을 활용해 디지털 소비관리 서비스 등 밀레니얼 세대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투자 서비스를 런칭해 상당 고객을 유치했다. 올해 7월부터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했다.

밀레니얼 고객 확대 전략을 추진한 이후 JP모건은 금융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평가되고 있다.

JP모건의 소매금융 부문 수익 또한

이같은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타 비즈니스 부문과 경쟁은행의 동일 비즈니스 부문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특히 개인영업과 카드 수익이 각각 29.9%, 24.5% 증가하며 소매금융 부문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국내 밀레니얼 세대 또한 미국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국내 금융업계도 JP 모건의 사례를 참고해 밀레니얼 세대에 특화된 상품·채널 운영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상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은행들은 밀레니얼 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전용 카드상품과 대학 캠퍼스 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밀레니얼 세대를 ‘주요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 보다는 ‘잠재고객’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며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돼가는 가운데, 국내 은행도 비즈니스 여건과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인 상품과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기업고객 전 은행 계좌관리 ‘한번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확대 제공

KEB하나은행이 기업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전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KEB하나은행은 복수의 은행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당행과 일부 시중은행 및 핀테크 업체에서 제공 중인 개인손님 대상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기업 고객에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전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는 19개 전 시중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가 한 눈에 가능한 것은 물론,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단 한 번의 실행으로 하나의 계좌로 모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또한, 전 은행 계좌의 일별 잔액 현황 보고서 출력 기능까지 더해져 기업 자금담당 실무자들의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KEB하나은행의 전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는 기업 인터넷뱅킹 이용 손님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로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자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로 차량 구매하면 ‘캐시백’

이벤트 응모하면 최대 30만원

삼성카드는 오는 31일까지 다이렉트 오토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를 이용해 행사 대상 차종을 구매하고, 주유·항공·숙박·철도 등 휴가 관련 업종에서 삼성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휴가비 1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대상 차종은 베뉴, 셀토스, 스토닉, 코나, QM3, 티볼리 등이다.

또한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 후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를 이용

하면,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카드는 2016년 7월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자동차 금융을 모바일로 전환한 다이렉트 오토를 출시했으며, 올해 2월 ‘내 차 시세 조회’, 7월 ‘내 차 팔기’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자동차 금융 관련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해 온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다이렉트 오토, 내 차 시세 조회 등 온라인 기반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신한디지털혁신연구소 AMCIS서 빅데이터 연구 성과 발표

(북·중미 정보시스템학회)

디지털 분야 연구결과 발표 국내최초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선 방법론 제안

신한금융그룹은 신한디지털혁신연구소(SDII)가 지난 15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북·중미 정보시스템학회(AMCIS)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대용량 금융데이터 피쳐 생성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디지털혁신연구소는 올해 AMCIS에서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연구개발(R&D)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공신력있는 국제학회에서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최하다.

신한디지털혁신연구소는 신한금융의 디지털 역량이 결집된 전문가 조직(CoE)이다. 지난해 3월 지주, 은행, 카

드, 금융투자, 생명 등의 실무직원들이 참여해 설립됐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그룹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금융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와는 다르게 변수의 비대칭 분포, 분류의 불균형, 발생 빈도의 희소성, 스케일 통일의 문제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됐다.

신한디지털혁신연구소는 이번 논문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표본 데이터의 속성(feature) 형태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론을 제안했다.

특히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 실험한 결과 데이터 예측의 정확도와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금융 데이터 모델 개선에 착수해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빅데이터, AI와 같은 기술은 이제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진정된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 리딩금융그룹의 위상에 맞는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신한카드 “청구서 한눈에 보고 자동이체까지”

원스톱 전자금융서비스 ‘마이빌엔페이’ 출시

신한카드는 21일 각종 청구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금융서비스 ‘마이빌엔페이(My BILL&PAY)’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지방세·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요금·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정기성 요금을 따로따로 내야 했다면, 마이빌엔페이를 이용하는 신한카드 고객들은 이를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과 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

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재 마이빌엔페이는 서울시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삼천리 도시가스, 신한카드 요금 청구서 등을 지원하며 향후 각종 정부발행 전자과지서와 정기성 결제 청구서 등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마이빌엔페이는 신한카드 모바일 앱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 대상을 추가해나감에 정기성 결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대학 등록금, 2~6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대학 등록금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연세대·서강대 등 국내 주요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우리카드(체크·법인·선불카드 제외)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결제할 경우,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학교에 대한 확인 및 결제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우리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우리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납부가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LG전자는 유럽에서 LG 올레드 TV로 각종 평가 1위를 휩쓸었다.

/LG전자

LG 올레드TV, 유럽서 '최고 TV' 휩쓸어

영서 '올해의 최고 TV' 수상
佛·獨 등서도 화질·성능 호평

LG 올레드 TV가 유럽에서 성능 평가 1위를 휩쓸었다.

LG전자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TV 비교 평가'에서 최고상인 '올해의 최고 TV'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리뷰 전문가 40여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은 결과다. 삼성전자와 소니, 파나소닉 등 TV와 맞붙어 블랙 구현과 색표현력, 게임 성능 등에서 호평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이에 힘입어 '최고 HDR TV'와 '최고 게이밍 TV'로도 뽑혔다. 영국 소비자잡지 '위치'에서도 TV 성능평가 1위로 LG 올레드 TV를 선

정했다.

프랑스 슈아지르와 네덜란드 콘슈멘텐본트도 LG 올레드 TV를 지금까지 테스트한 TV 중 최고라고 극찬하며, 단점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독일 품질 테스트 기관 '슈티프퉁 바렌테스트' 발행잡지 '테스트'도 화질과 사운드에서 올레드 TV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스웨덴 소비자잡지 라드앤론은 LG 올레드TV 화질과 음질에서 스마트기능 등을 들어 1위로 선정했다.

그밖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체코 등 현지 소비자 잡지도 LG 올레드 TV를 평가 결과 1위라고 발표했다.

/김재용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印尼 국영 BBI社와 MOU

동남아 엔진시장 거점 확보

13년간 부분·완전조립 등 협력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 가속화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인 BBI와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엔진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1일 인도네시아 자바 북동부의 항구도시 수라바야에서 요욕 하디 사트리요노 BBI 최고경영자(CEO)와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 유준호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엔진 생산·영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영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BBI와 디젤엔진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앞으로 13년 동안 엔진의 단순·부분조립, 완전조립 등의 단계를 거쳐 BBI의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엔진 시장도 함께 공략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 BBI와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할 선박용 엔진 DV22 모델.

/두산인프라코어

BBI는 연간 최대 1만6000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순·부분조립 생산공장을 마련했으며 향후 2만5000대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공장에서 선박용과 건설기계용, 농기계용, 발전기용 등 인도네시아 주요 엔진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들을 생산한다.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은 차량과 산업용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해 5만5000

대에서 2025년에는 7만1000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유준호 부사장은 "BBI 공장은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공략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별 엔진 라인업에 맞춤형 생산 체계를 갖춰 다양한 엔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쌍용차, 추석 황금연휴 시승단 100팀 모집

코란도·티볼리·렉스턴 스포츠 칸
3개 인기차종 대상 총 50대 제공

쌍용자동차는 올 한가위는 물론 10월 황금연휴에 새로 선보인 코란도 가솔린을 비롯한 주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단 100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시승단이 체험하게 될 모델은 가장 인기 있는 3개 차종으로 올해 선보인 신모델이다.

시승단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추첨을 통해 ▲코란도 25대 ▲티볼리 15대 ▲렉스턴 스포츠 칸 10대 등 총 50대를 제공하며 각각 9월 11~16일, 10월 2~7일 기간 동안 신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당첨된 시승단 전원에게 주유상품권(5만원)을 지급한다.



티볼리/쌍용자동차

한가위 시승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10월 황금연휴 시승 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 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각각 9월 4일과 25일 발표하고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승단 참가 고객이 코란도 신차를 구매(오는 10월 말까지 출고 기준)할 경우 10만원 특별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정연우 기자

삼성, 超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글로벌 TV '1위'

2분기 TV시장 점유율 31.5%
75인치 대형제품 54% 점유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TV 시장 점유율 31.5%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201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기준으로 30%를 넘겼다.

2위인 LG전자(16.5%)보다도 2배나 높은 점유율이다. 일본 소니(8.8%)와 중국 TCL(6.3%), 하이센스(6.2%)를 합쳐야 비로소 비슷해진다.

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 점유율은 19.4%, LG전자(12.4%)와 TCL(9.4%), 하이센스(7.3%), 샤오미



삼성전자가 국내에 2019년형 QLED TV를 출시한다.

/삼성전자

(5.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75인치 이상 대형, 2500달러 이상 고가 제품 등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4%에 가까웠다. 소니는 각각 19%, 24.5%에 그쳤다. LG전자 역시 각각 16.2%, 17.8%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TV 시장이 사실상 정체 기임에도 삼성전자가 선전을 거듭한데

에는 이같은 '프리미엄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QLED TV도 올레드 TV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2분기 판매대수는 삼성전자가 109만대 등 120만대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올레드 TV는 전분기와 같은 61만대에 그쳐 여전히 부진했다. /김재용 기자 juk@

태블릿으로 무대 비추면 배우들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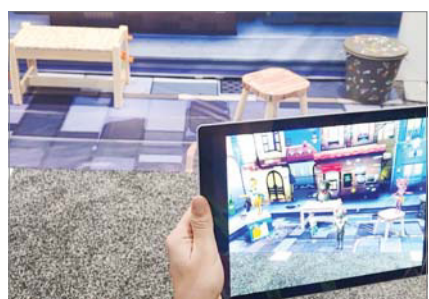
ETRI, 시그라프서 'AR 뮤지컬' 공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증강현실(AR)로 뮤지컬을 만들어냈다.

ETRI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동안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그라프'에서 'AR 뮤지컬'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뮤지컬에는 ETRI가 개발한 'AR 공간 생성 및 위치 추정 기술'과 'AR 인터랙션 기술'에 공동 연구기관 토즈의 애니메이션이 접목됐다.

뮤지컬은 특수 제작한 무대와 태블릿 PC로 진행됐다. 태블릿으로 무대를 비추면 배우들이 증강현실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ETRI는 알고리즘을 최적화



AR 뮤지컬 모습.

/ETRI

해 추후 민간 업체에 기술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ETRI 정성욱 박사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AR 기술을 고도화하고, 협력기관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AR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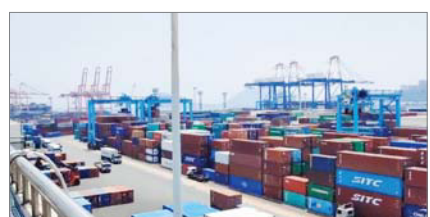
LG U+, 5G 스마트 항만사업 개척 나선다

서호전기와 MOU 양해각서 체결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
컨테이너 원격조종, 탄력적 운용

LG유플러스가 스마트 항만 사업에도 진출한다.

LG유플러스는 21일 LG유플러스 울산 사옥에서 서호전기와 '5G 스마트 항만' 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항만은 크레인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운영 효율을 극대화 시킨 항만 운영 체제를 뜻한다.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으로 컨



LG유플러스는 서호전기와 손잡고 스마트 항만 사업을 시작한다.

/LG유플러스

테이너 원격 조종해 시간대별 탄력적 크레인 운용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야적장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 문제도 예방한다.

양사는 앞으로 실무협의단 구성과 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5G 통신망 활용 확대와 B2B 원격제어 기술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을, 서호전기는 차세대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제공 등을 기대했다.

LG유플러스 서재용 기업5G사업담당 상무는 "5G 통신 서비스와 항만 크레인 자동화 솔루션에 전문성을 지닌 양사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스마트 항만 사업 모델을 기획했다"라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에서 운영되는 항만 시스템 만큼 사업의 양적·질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도전하는

LIFE IS
GOOD

- 도전은 늘 두려운 것
- 도전은 늘 두근거리는 것

도전하는 삶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니까

당신의 더 행복한 LIFE를 위해



와이진 (Y.ZIN) 국내 최초 여성 수중 사진 작가.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이제껏 누구도 담아내지 못했던 신비로운 수중 세계를 표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자연색 그대로의 완벽한 색을 구현하는 LG OLED TV를 통해 작품을 모니터링 중인 그녀의 모습.

日 노선 줄인 LCC업계, 동남아·러시아로 눈 돌린다

제주항공, 마카오·가오슝 노선 증편
대구-세부 노선 주 4회 신규취항
LCC, 10월 日 60개노선 중단·감편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일본여행 수요 감소로 노선을 줄이기 시작한 제주항공이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노선에 대한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다른 LCC(저비용항공사)들도 일본을 제외한 타 노선에 취항하거나 증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일본 여행객 수요 감소 대안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코타키나발루, 9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마카오 노선을 각각 주 4회씩 증편 운항한다.

인천-가오슝 노선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1회, 인천-태국 치앙

마이 노선은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 2회 증편 운항한다. 대구-세부 노선은 오는 9월 17일부터 주 4회(화·목·토·일요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또 오는 10월에는 러시아 노선 증편을 계획 중이다. LCC들은 10월 말까지 60여 곳의 일본 노선을 중단

하거나 감편한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산-타이중 노선에 신규 취항해 부정기편을 주 3회(화·목·토) 운항하며, 화요일 오전 8시,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토요일 오전 9시 부산 김해 공항을 출발하는 스케줄로 운영한다.

에어서울은 인천-다낭 노선의 주간 스케줄을 증편한다. 국토부 제재로 신규 취항이 막힌 진에어도 일본 노선을 감편하는 대신 동계시즌 동남아 노선 증편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 역시 동남아 노선 증편을 검토 중이다.

당초 LCC들은 중국 노선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취항 및 증편 금지 조치를 내리며 취항일정을 미루거나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중국 일부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 및 정규·임시 증편, 부정기편 운항을 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로 ▲인천-하얼빈 ▲부산-장자제 ▲무안-장자제 등 3개 노선이 막혔다. ▲인천-엔지 ▲무안-엔지 ▲인천-난통 등은 제외다. 제주항공은 지난 19일 ▲인천-

엔지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제주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취항지 중 여행객 수요가 '과부하'인 곳에 한해 내린 조치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동남아노선 증편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일본 대체 노선으로 동남아 노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먼저 인천-클락 노선에 10월 27일부터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이밖에 ▲인천-다낭 ▲인천-치앙마이 ▲인천-발리 등에 대해선 증편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다낭 노선의 부정기편을 신설해 항공편 공급을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해당 노선에 주 7회 정기편을 운항 중이었다. 여기에 부정기편(주 7회)을 더해 주 14회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주행 중인 코란도 가솔린 모델. /쌍용자동차

취미가 여행 이라면 '금상첨화' 마이카

자동차 시승기

쌍용차 '코란도 가솔린'

부드러운 승차감·정속성 돋보여
2열에 신장 180cm 성인도 넉넉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1열 내부. /쌍용자동차

"사고 싶은 차다" 시승을 진행한 후 몇몇 기자들의 입에서 나온 평이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성능, 2000만원대의 판매가격은 3인 가족이나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취미가 여행 이라면 이 차는 '금상첨화'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 소재 서울 마리나에서 출발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쌍용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란도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모델을 시승했다. 소음과 진동이 많다는 기존 디젤 모델에 대한 평과는 달리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속성이 돋보였다.

고속구간에 진입하자 구간 단속에 주의하며 가속 페달에 힘을 주어 보았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단 커브구간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차체제원은 전장 4450mm, 전폭 1870mm, 전고 1620mm다. 작고 다부진 외형과는 달리 내부는 상상이상으로 넓은 편이었다. 조수석을 잘

만 조절하면 2열에 신장 180cm 이상의 성인이라도 무릎 공간이 제법 넉넉하다.

적재공간은 551리터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골프백 4개(또는 유모차 2개)와 보스틴백(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시에 수납 가능하다.

시승 중 자율주행 기능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 보았다. 시속 100km로 맞추자 차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휠은 기어봉 하단에 위치해 있다. 노멀, 스포츠, 윈터 등 총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꾼 뒤 고속 주행을 해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다. 쌍용차에 따르면 ▲긴급제동보조 ▲차선 유지보조 ▲앞차출발알림 ▲부주의 운전경보, 안전거리 경보 등 첨단 안전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한편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256~2755만원이다. 디젤 모델보다 190만원 저렴해 가성비 높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연우 기자

현대차, 준대형트럭 '파비스'



내달 출시 신차명 확정, 렌더링 공개
29일 일산 '트럭앤버스 페어'서 첫 선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현대차 준대형 트럭(프로젝트명 QV) 신차의 차명을 '파비스'로 확정하고 내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21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파비스(PAVIS)'는 실용적인(Practical), 개조하기 쉬운(Adaptable), 넓은(Volume),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Information), 안전한(Safety), 경제적인(Economical) 등에서 따왔다.

또한 차명 '파비스'는 '중세 유럽 장방형의 커다란 방패'를 의미한다. 신형 그릴 디자인의 모티브이자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앞서나가는 이미지를 추

구한다.

현대차는 경제성, 실용성은 물론 넓은 적재공간, 첨단 안전 사양 등을 충족시킨 준대형 신형 트럭 파비스를 통해 소형에서 대형을 아우르는 트럭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외장디자인의 전면부 그릴은 단단하고 강한 방패의 웅장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구조적으로 짙어진 디자인을 완성했다.

내장 디자인은 트럭 운전자에게 딱 맞는 레이아웃, 실용적인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에서 '파비스'의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상용 박람회 '트럭앤버스 메가페어'에 이어 개최되

는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에서는 '공존'을 주제로 기존 내연 기관 차량, 미래 친환경 차량 등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특장차 10종을 함께 공개하는 파비스 존 이외에 ▲올 1월 새롭게 출시한 엑시언트 프로 등을 전시한 '엑시언트존' ▲수소연료전지스택, 수소전기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존' ▲미래 기술 개발 전략을 소개한 '신기술 비전존'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 고객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간의 가치를 더한 준대형 트럭 파비스는 현대차 트럭 라인업을 완성하는 새로운 기대주"며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 실용성 등 다양한 장점을 응축해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고급 세단같은 내부 '모하비 더 마스터'

기아차, 플래티넘·마스터즈 사전계약

기아자동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 사전 계약을 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모하비 더 마스터(사진) 가격은 3.0 디젤 모델 플래티넘이 4700~4750만원, 3.0디젤 모델 마스

터즈는 5160~521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의 내장을 넓은 가로형 레이아웃으로 디자인해 고급 세단과 같은 프리미엄한 공간을 연출했다. 또 혁신적 이미지를 구현한 모던한 형상의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센터페시아에 서도어까지 길게 이어져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여하는 우드그레인 가니시, 간결하고 모던한 버튼을 적용했다. 세련된 센터페시아, 다양한 정보를 시원하게 보여주는 12.3인치 대

형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운전자 설정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3D 패턴 무드 램프 등이 적용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전장 4930mm, 전폭 1920mm, 전고 1790mm, 휠베이스 2895mm다.

전면부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볼륨감 있는 후드 캐릭터라인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등, 첨단 이미지의 풀 LED 헤드램프로 정교함을 더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통일감 있는 버티컬 큐브 리어 램프,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다운 든든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듀얼 트윈팁 테코 가니시, 모하비 전용 고급스러운 엠블럼을 적용했다. /정연우 기자



증권사 '수익률 5%' 발행어음·RP 특판상품 완판행진

NH투자증권 신규고객 10만명에 판매 월 최대 50만원씩 6회, 180일 만기

KB증권 월 50만원 1년동안 적립 CMA 개설고객에 석달간 우대수익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연 5% 특판 상품에 몰리고 있다. 신규 계좌개설, 최초 비대면 가입고객 등 조건이 까다롭고 주로 1년 정도의 단기 상품이지만 나올 때마다 완판 행진이다.

발행어음 자격을 갖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연 5% 특판 발행어음을 출시하고, 그렇지 못한 증권사는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선보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1년짜리

〈연 5% 이하 주는 증권사 금융상품〉

증권사	상품	조건	비고
KB증권	특별 우대수익률 CMA	KB증권 최초 CMA 개설 개인 고객	선착순 5만명
	특판 적립식 발행어음	주민등록기준 최초 신규 고객, 6월 2일 이전까지 당사에 활동 계좌가 없는 고객	3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NH투자증권	특판 적립식 발행어음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선착순 10만명
신한금융투자	연 5% 특판 RP	신규고객이 비대면CMA계좌 개설 시	선착순 2만명

〔자료=각 사〕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특판 상품은 '없어서 못파는' 중이다.

우선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연 5%짜리 특판 발행어음을 내놓을 때마다 완판행렬이다. 보통 적립식 발행어음 금리는 3% 수준으로 특판 상품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역마진' 상품이다.

현재 5% 특판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이다.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모바일 거래플랫폼 '나무'의 신규 고객 선착순 10만명에게 연 5% 금리를 지급하는 적립식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다. 월 최대 50만원씩 6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180일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내놔던 5% 특판 발행어음이 한 달만에 완판됐다"면서 "5%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판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KB증권 역시 5% 특판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이후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만원(연간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판매 한도는 300억원이다.

아울러 CMA 특판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5만명에게 석달간 특별 우대수익률(연 5%)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연 5% 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RP란 증권사가 만기 때 정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CMA 계좌 개설 시 3개월간 100만원 한도로 연 5% 약정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착순 2만명이 대상

이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6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20만원 한도로 연 5%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월 저축형 RP 상품을 내놔는데, 판매 한 달 여만에 잔고가 모두 소진됐다.

이러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특판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연 5% 특판 RP 상품은 꾸준히 내놓고 있고, 꾸준히 완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 5% 특판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업계에선 역마진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RP, 발행어음에 5% 금리를 약속한다는 것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고객을 모으겠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유입된 고객을 잘 활용하는 고객관리 노력이 있어야 증권사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제넥신-툴젠 합병무산 악재 덮은 안국약품의 기술이전

항반변성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에 주식시장서 '바이오주' 급반등

현대약품, 치매약 해외임상 착수

지난 20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초과로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바이오주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됐지만 21일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주는 호재 소식이 전해지며 급반등했다.

20일과 21일 안국약품·현대약품·인스코비 등이 호재성 뉴스를 내놓으면서 합병 무산 악재를 누르고 바이오주가 동반 급등한 것.

안국약품은 지난 20일 바이오벤처 레피젠과 노인성 항반변성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매치료제 복합제 임상 3상을 승인받고 국내 및 해외임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인스코비가 '발모 촉진을 위한 생체 식립용 임플란트' 특허를 국내 및 일본에서 동시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인스코비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현대약품은 13.15% 급등했고, 안국약품은 5.75% 상승해 강세를 보였다. 또 불확실성을 해소한 제넥신도 6.24%가 올라 장을 마감했다. 메디톡스도 5.88%가 올랐고,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및 헬릭스미스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무산은 예상됐던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두 회사의 합병 공시 이후 여러 악재들로 인해 제넥신의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합병 가능성은 낮아보였고,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었다"며 "합병이 무산된 점은 기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발표된 당일 툴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 이슈가 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도 "합병 무산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어서 업종 내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합병 무산 발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측면에

서 긍정적이며, 제넥신을 저가 매수할 기회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명선 연구원은 제넥신에 대해 "합병을 찬성한 주주들로 인해 주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합병 발표 전 주가로 회복될 것"이라며 "파이프라인 가치는 변함이 없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선민정 연구원도 "두 회사간 기술적 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제넥신의 기술개발(R&D)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며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이루킨 투여 임상 1b상 데이터를 11월 6일 개최되는 면역치료학회, SITC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지속형 성장호르몬 임상 3상 IND 신청서도 4분기 제출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했다. /채운정 기자 echo@

정수기 넘어 탈취·공기청정까지... 30년 기술 '글로벌 노크'

IPO간담회

정수기필터 제조 한독크린텍

웅진코웨이·LG전자 등 제품납품 내일까지 수요예측, 27~28일 청약

정수기 필터 제조사 한독크린텍이 다음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카본블록 정수 필터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를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정용 정수 필터에 집중했던 회사 포트폴리오를 상업·산업용 정수 필터까지 확장하고 탈취, 공기 청정 필터 시장에도 새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독크린텍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공모 자금은 93억~105억원 수

준이다. 조달된 자금은 정수 필터 자동화 생산 라인 시설 설비 투자와 탈취 필터 생산에 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비, 운영자금에도 사용된다. 공모주식수는 70만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만3300원~1만5100원이다. 오는 22~23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27~28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고인선 한독크린텍 대표이사는 "30년 업력으로 발전시킨 압축 카본필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독크린텍은 1990년 설립된 한독CW가 2003년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다. 국내 최초 도입한 압축 방식 카본필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정수기 필터 시

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카본블록 필터 ▲PE 선처리 필터 ▲탈취 필터 제조 등이 있다. 특히 카본블록 정수 필터는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과 악취를 걸러내는 주요 필터로 정수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독크린텍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396억2700만원, 영업이익 49억1200만원, 순이익 41억65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6%, 127%, 72%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231억8100만원, 영업이익 28억3200만원, 순이익 25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한독크린텍의 압축 카본블록 필터는 제품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고유량, 고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수기 제조 업체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웅진코웨이, LG전자, SK매직, 쿠쿠홈시스, 교원 등 주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광규 한독크린텍 전무가 다음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독크린텍

정수기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며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매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전방 사업인 국내 정수기 사업이 렌탈 케어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보급률은 약 60%에 달한다. 또 국내 정수기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2000억원에서 연평균 2.19% 성장해 2020년 약 2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증권 다이제스트



하나금융투자
신규 고객에 '요기요 쿠폰'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손님에게 배달어플리케이션인 '요기요'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국내주식을 처음 거래한 손님에게는 '요기요'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첫 거래 후 2개월 동안 추가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가 있는 달에 오천원씩 쿠폰을 더 준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손님은 최대 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금융그룹의 토탈 금융 플랫폼인 '하나멤버스'에서 먼저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손엄지 기자

삼성증권
입맛대로 골라골라 이벤트

삼성증권은 연금 중 대표상품인 TD F(Target Date Fund)에 신규 입금하거나 연금을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삼성증권 입맛대로 골라골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입금 후 이벤트 대상인 6개 운용사의 상품 중 원하는 TDF를 매수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된다. 참여 고객은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신규로 400만원 이상 입금한 후 TDF를 매수하면 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데이터기술 美의 79%... “아마존 맞서려면 규제 혁파를”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

韓, 선진국比 인력·인프라 뒤쳐져
금융·유통·IT 융합해 서비스를
안전한 보호체계 먼저 마련돼야

“동·식물의 퇴적물인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였다면, 개인이 남긴 데이터는 4차산업을 이끄는 21세기 원유다.”

‘데이터 경제’ 시대, 단순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정제해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데이터 활용수준 63개국 중 31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모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 조상규 변호사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그는 “선진국은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강하게 개인정보를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는 시장규모가 작고 업종이 분산화 돼 있어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업의 경우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등으로 분산돼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위스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 2018년 31위에 불과하다. 인공지능기술도 2018년 미국과의 격차는 1년8개월 이상 벌어졌으며, 데

이터 분야 기술은 미국대비 7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와 신용정보업체(CB)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시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산이 협소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 가점을 줄 수 있지만 데이터 결합·활용이 어려워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만 확보되면 가치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구성돼 있는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인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

으로 관리할 수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 시 가명과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한국 시장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시장으로 진출해 오는 것에 맞서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금융, 유통, IT 등을 융합한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막아야”

다만 4차산업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은 더 이상 선택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외국에 비해 포괄적이어서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악의적 이

용에 대해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현재는 당초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비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 경우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 사회적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확대하려던 가명정보 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또 정보집합물(결합된 정보)을 허용하는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집합물의 허용범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고객정보를 결합시켜주고,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해외 사례는 없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DGB대구는행-메디에이지, 금융·바이오테크 ‘맞손’
DGB대구는행이 바이오테크 전문기업 메디에이지와 건강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황병욱 대구은행 본부장, 김강형 메디에이지 대표. /DGB대구는행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셀프연금 ‘부상’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개인이 직접 금융자산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연금’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에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에서 “고령화로 노후준비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셀프연금이 중요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평가했다.

셀프연금이란 개인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매달 연금 처럼 일정 금액씩 수령하는 것으로, ‘자가연금’ 또는 ‘DIY(Do It Yourself)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구소는 기존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과 중신연금보험의 한계 때문에 셀프연금이 주목받는다”고 설명

했다. 이 연구소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158만원으로 최저생활비(17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어려워 개인이 직접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신연금보험은 개시 이후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 연금수령이 자유롭지 않아 선호도가 낮지만 셀프연금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연금 공백기’에 셀프연금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연금 개시를 늦추기 위해 셀프연금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채윤정 기자 echo@

단기외채 비율 6년來 최고... 건전성 비상

한은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

2분기 단기외채 비율 37.4%
단기외채 160억 달러 급증 영향

외채 건전성지표인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외채 비중도 6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7.4%로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분기(34.9%)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외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단기외채가 1400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06억 달러 급증한 영향이 컸다. 상승폭은 지난 2012년 2분기(3.2%포인트·1435억 8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30.3%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2013년 1분기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단기외채는 외국인이 보유한 만기 1년 미만이 채권 혹은 대출금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통상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은 대외 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대외지급 능력이 악화하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대외채권·채무 현황>

단위: 억달러, %, %p

구분	2018p			2019p		분기증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3월 말	6월 말	
대외채권	8,935	9,095	9,081	9,148	9,331	184
(준비자산 ¹⁾)	4,003	4,030	4,037	4,053	4,031	-22
대외채무	4,333	4,417	4,406	4,406	4,621	215
(단기외채)	1,250	1,277	1,266	1,294	1,400	106
순대외채권	4,602	4,678	4,675	4,742	4,711	-31
단기외채/준비자산	31.2	31.7	31.4	31.9	34.7	2.8
단기외채/대외채무	28.9	28.9	28.7	29.4	30.3	0.9

주: 1) 외환부유역 총액을 계상.

/자료=한국은행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한은과 정부는 단기외채 비율이 큰 폭 상승했지만 외채 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국채·통안채 투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상대적으로 단기외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외채 비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원화채권에 대한 투자가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외채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외국인의 국내 국고채·통안채 투자가 늘고 외은 지점의 차입 등 원화채권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단기외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은 여전히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 위기 때나 다른 신흥국 상황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채무(해외에 갚아야 할 돈)는 전분기 대비 215억달러 늘어난 4621억달러

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분기(222억 7000만달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외채권(해외에 빌려준 돈)은 184억달러 증가한 933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전분기보다 31억달러 감소한 4711억달러를 나타냈다.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6개월 만이다.

대외금융자산(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은 거주자의 해외 지분투자(77억달러)와 증권투자(284억달러) 증가로 전분기 대비 481억달러 증가한 1조621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비거주자의 증권투자 증가로 221억달러 증가한 1조1592억달러였다.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260억달러 늘어난 462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김희주 기자 hj89@



HUFS의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8학번 최세인

공과대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15학번 정경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글로벌 통합형 인재를 위한 글로벌캠퍼스의 영어몰입교육, 레지덴셜 프로그램

최고의 과학과 공학이 언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조합니다.

HUFS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서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 함께 과학·공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글로벌캠퍼스
Residential College 운영



2020학년도 글로벌캠퍼스 경상/
자연과학/공과대학 신입생 전원
영어 전용 기숙 생활

환경 정화 기술 개발 주제로
국제저명 학술지(SCI) 논문 게재



환경 분야 상위 10% 논문지
Science of the Total Environ-
ment 획기적인 논문으로 인정
환경학과 황선경 학생

경영과학 분야 세계 최대 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수상



경영과학 분야 세계 최대 학회
INFORMS 주관 오퍼레이션 리서치
공모전 2년 연속 수상 쾌거
산업경영공학과 강문정, 조진영, 이유허 학생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9. 9. 6(금) 10:00 ~ 9. 9(월) 18:00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상한제 적용 前 분양 쏟아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추진 등으로 건설사가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아직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 되는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10대 건설사(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가 6만346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하반기 10대 건설사 공급량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편이다. 전체 물량의 72.72%에 해당하는 4만6155가구(28곳)가 서



부천 신흥주거타운... 비규제 지역 '시선집중'

현대건설 컨소시엄 일루미스테이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은 이달 중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39(계수·범박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일루미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일루미스테이트는 4개 단지 3724가구 가운데 39~84㎡, 250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계수·범박지구는 옥길지구(7635가구 예정)와 서울 향동지구(4827가구 예정)가 인접해 있으며, 그 중심 입지에 위치한 일루미스테이트까지 입주하면 총 1만6000여가구의 신흥주거타운이 완성된다.

단지에서 약 200m 거리에 시흥~구로를 잇는 서해안로, 또 단지에서 약 1.8km 거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가깝다. 지하철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재울역 이용도 가능하다. 소재울역 이용 시에는 한 정거장 거리의 1호선 소사역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천과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 등 범박·옥길지구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루미스테이트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부천시에 들어선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계약 후 6개월로 짧다.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도서관 등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맘스카페, 키즈클럽 등 특화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특히 4단지의 경우 교육특화인 북카페, 남독서실, 스테디룸, 동호회실 등도 함께 조성된다. (1588-5207)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적용

대림산업 e편한세상 파주 운정 어반프라임

대림산업은 이달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 27블록에서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1010가구를 분양한다. 면적별 가구수는 ▲59㎡ 418가구 ▲74㎡ 157가구 ▲84㎡ 435가구다.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이 공급되는 파주 운정3지구는 운정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다.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인근으로 GT X-A 운정역(예정)이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로부터 200m 거리에는 제2자유로(삼다리IC)가 위치해 있다. 차량을 통해 자유로, 제2자유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연장(파주시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 중)과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예정) 등 광역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개발, 디자인, 철학 등이 집약된 'C2 하우스(HOUSE)'가 적용된다. 라이프스타



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HOUSE'는 입주민의 생활을 한층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C2 HOUSE'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다. e편한세상 브랜드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시설이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도 마련된다.

한편 대림산업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74-1번지 대광프라자 1층에서 사전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1600-0922)

사통팔달 교통망에 숲세권 입지까지 장점

롯데-SK건설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식티지

롯데건설과 SK건설은 이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3 일원에서 철산주공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식티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1313가구 가운데 59·70·84㎡ 7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A 414가구 ▲59㎡B 272가구 ▲70㎡ 17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식티지는 도보권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한 정거장 거리이며 강남 고속터미널역까지도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KTX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있다.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안양천, 목감천 등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도덕산공원, 철산공원, 개봉공원, 철망산근린공원 등도 가까이 있다. 또 인근 광명시 일



직동·소하동 일원 195만6000㎡ 부지에 개발 중인 KTX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의료복합클러스터, 광명미디어아트밸리, 국제무역센터 등 업무, 유통, 상업이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도시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대 205만7000㎡ 부지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는 것도 호재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세대 내 환기와 공기청정기는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공기 청정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1811-6767)

고덕국제도시서 기다려온 입지... 학세권 기대

호반산업 평택 호반써밋 고덕

호반그룹 건설계열인 호반산업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도시기획지구 A22블록에 '호반써밋 고덕' 84~112㎡, 658가구를 이달 말 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325가구 ▲84㎡B 92가구 ▲94㎡A 27가구 ▲94㎡B 10가구 ▲102㎡ 182가구 ▲112㎡ 22가구다. 호반써밋 고덕은 수도권 자족형 도시인 '고덕국제도시'에서도 기다려온 입지다.

호반써밋 고덕은 중심상업시설(예정)과 행정타운(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대규모 근린공원이 예정돼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이 단지는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주변은 단독주택 용지여서 개방감과 조망감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학교용지가 있고,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는데 평화예술의 전당도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호반써밋 고덕은 KTX와 SRT 정차역인 지제역 이용이 편리하고,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IC를 통해 수도권 이동이 가능하다. 고덕신도시 내 예정된 BRT(간선급행버스)도 운행된다.



호반써밋 고덕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4베이 위주의 설계(일부 세대 제외)를 적용한다. 전용 84㎡, 94㎡, 102㎡, 112㎡의 다양한 타입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 룸, 주방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호반써밋 고덕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46-2에 마련된다. 한편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건설도 고덕국제도시기획지구 A43블록 766가구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1566-0399)

공급 가뭄 前 내집마련 적기

울, 경기, 인천에서 공급된다. 또 '대대광(대구·대전·광주)'에서 8567가구(6곳)가 분양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공급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오는 10월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의정부의 노른자 입지... 생활 인프라 풍부

GS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GS건설이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 위브캐슬'을 이달 분양한다.

현재 의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은 ▲중앙2구역(2473가구) ▲중앙3구역(910가구) ▲가능1구역(466가구) ▲금오1구역(832가구) ▲장암1구역(769가구) ▲장암3구역(887가구) ▲장암5구역(1070가구) 등 총 7개 구역, 7407가구 규모에 달한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 중앙 2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질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GS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380 일원에 공급하며 39~98㎡, 1단지·2단지 568가구 등 2473가구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1단지 1096가구, 2단지 283가구 등 137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의정부 중심가에 위치해 교통시설은 물론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장암점), 의정부로테오거



리, 의정부제일시장, 청와야채시장,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편의·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1호선 의정부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GTX-C 노선 개통 호재도 있어 향후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바로 옆으로 서울로 연결되는 3번 국도가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 호원IC 등 광역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통해 강남권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초역세권·학세권·숲세권까지 다 갖췄다

대우건설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대우건설은 이달 중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초역세권에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57-5 일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8층, 10개 동 규모다. 34~114㎡, 832가구다. 이 가운데 49~75㎡ 3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무악재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광화문역까지 15분, 강남(교대역)까지 40분 내에 갈 수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또 통일로를 통해 광화문, 시청, 종로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흥은사거리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북강변,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안산초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며 신원중, 정원여중, 한성과학고, 대신고 등이 가깝고 서울시 교육청 서대문도서관과 서대문구립 이진아기킴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이다. 뒤로는 안산, 길



건너편으로는 인왕산을 두고 있어 산책이나 등산 등 여가생활을 보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인근에는 지난 2008년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흥제천이 있다. 흥제천에는 인공폭포,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이 조성돼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입주민을 고려한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도 눈에 띈다. 풍성한 조경계획을 통해 단지 내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가든이 마련되며 생태연못, 주민운동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마포대로 193에 마련된다. 입주하는 오는 2022년 10월 예정이다.

산업단지 직주근접... '마이펫 가든' 등 첨단시설

한화건설 포레나 천안 두정

한화건설은 이달 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8 일원에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천안 두정' 76~102㎡, 1067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76㎡A 252가구 ▲76㎡B 90가구 ▲76㎡C 87가구 ▲84㎡A 462가구 ▲84㎡B 75가구 ▲102㎡ 101가구다. '두정지구'는 2008년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약 94만㎡ 규모, 7500여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이다.

특히 두정지구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천안 서북구의 신형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e편한세상 두정3차·4차, 천안두정역 푸르지오 등 4700여 가구가 입주할 마치고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 중이다. 또한 두정지구는 삼성SDI,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이 인접해 있다. 먼저 도보권에는 6.5km의 산책 코스를 갖춘 큰매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 반경 1.5km 이내에는 천호지 호수공원, 도솔공원 등이 있다.

포레나 천안 두정은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첫 적용 단지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인 '마이펫 가든', 아트갤러리 '갤러리 포레나', 친환경 생활정원과 공용데크, 야외 물놀이장,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보기 힘든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들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원스탑 무인택배함, 원패스 시스템, 독거노인알림서비스 등 입주민 편의시스템이 적용된다. (1661-6700)

광폭 와이드 테라스로 집에서 캠핑을

㈜우남건설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

㈜우남건설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서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을 분양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 택지지구 B13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4층, 71~84㎡, 238가구 규모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 동탄대로에 바로 붙어있는 입지인 데다 전세대 테라스 구성 등 다른 단지에서 볼 수 없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은 동탄2신도시에서도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에는 장지체육공원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동탄2신도시 남부생활권의 중심지인 '워터프론트 콤플렉스'가 들어선다. 산책저수지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커뮤니티 공원과 전체부지의 약 47%가 공원 및 녹지, 수변으로 조성된다.

동탄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교통 호재가 몰려있는 동탄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다. 단지 바로 인근으로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1·2호선 트램 정류장과 광역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해 있다. 동탄 1·2호선 트램(확정)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 단지



로 동탄역과 망포역 이동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오산IC,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311번 지방도로가 위치해 있다.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은 전세대 남향 위주의 구성으로 일조권을 확보한 판상형 구조다. 광폭 와이드 테라스 설계를 적용해 작은 정원, 바비큐 파티, 미니캠핑장, 물놀이 공간 등 다채롭다. 84㎡는 1층 가구에는 복층과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3층에는 다른 세대보다 넓은 광폭 와이드 테라스, 4층에는 테라스와 다락방이 들어선다.

홍보관은 동탄 센트럴파크 앞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42-2 센트럴파티오 1층(스타벅스 옆)에 위치해 있다. (1833-3777)

북미협상 재개될까... 美비건 “北과 협상 준비돼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북한 관련한 진전 만드는데 집중”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마친 후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미협상전략을 논의한 가운데, 외교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 본부장과의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

가(러시아)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지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며 “러시아에서 외교업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

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정상간 6·30 판문점 회동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작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 재개 임무를 맡겼다. 나는 이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전념

해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 나눴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방한했다”며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대화의 전기가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비건 대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전날 일본을 거쳐 방한했다.

나아가 한미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실무협상 조기 재개 및 협상 전략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잇따라 쏜 발사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외교계 일각의 전언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을 만난 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22일에는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비건 대표의 방한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이란 측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연합훈련 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 등을 살펴볼 때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유력하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새 학기 시작한 초등학교

전국 초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개학을 한 가운데 21일 서울 한강대로 용산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마친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시원스쿨 KS-PBI 온라인영어회화학습 최고점 (프리미엄브랜드지수)

4년 연속 1위 ... 교육 트렌드 이끌어

시원스쿨은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인증 수여식’에서 온라인영어회화학습 부문에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평가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브랜드의 인지, 이미지, 편익, 마켓 리더십, 애호도, 사회적책임 등 6개 측정모델 평가 결과 시원스쿨은 온라인영어회화학습 부문 종합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시원스쿨은 2006년 기초영어회화 강의 콘텐츠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단



시원스쿨이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인증 수여식’에서 온라인영어회화학습 부문에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시원스쿨

어연결법과 연령별 맞춤 학습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어 동영상 강의와 태블릿 PC의 결합으로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패밀리랩을 선보이는 등 교육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용수 기자 hys@

웅진씽크빅, ‘2019 창의수학 경시대회’ 연다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오는 10월 19일 전국 웅진씽크빅 회원을 대상으로 ‘2019 창의수학 경시대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6회째를 맞이한 웅진씽크빅 창의수학 경시대회는 웅진씽크빅 회원들의 학습성

취도 확인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약 7만 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했으며, 매년 전국 각 지역 웅진씽크빅 사업장 및 대외 기관 내 특별 시험장을 갖춰 전국 단위 규모의 경시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공과대, 공학교육 혁신 나선다

학과중심 체제서 대단위 학부제로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교육 강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이 기존 소규모 학과중심 체제를 대단위 학부제로 개편하고 공학교육 혁신에 나선다.

21일 건국대에 따르면, 공과대학이 최근 학부제로 전환한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에 이어 2020학년도부터 사회환경공학부(기존 사회환경공학부, 기술융합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이들 5개 대단위 학부와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신산업융합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 K뷰티산업융합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 4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건국대 공과대학은 대규모 학부제 신설과 함께 ‘융합-모듈 클러스터’ 커리큘럼을 도입해 교육 내용도 혁신한다. 예컨대, 사회환경공학부의 경우 인프라 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를 통합해 5개의 전공트랙을 편성하고, 이들의 조합이 하나의 직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국대 전경 /건국대학교

학부 단위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기존 강의 중심의 교육 개념을 뛰어넘어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년 8학기 틀을 바꿔 학생들이 자기 주도하에 학기와 커리큘럼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 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현장실습 2+1학기제’, ‘채용연계성 3+1학년제’ 등 공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4+1 학·석사 통합과정’ 등 연구인턴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연구 활동도 지원한다.

교수법 또한 학습 동영상 등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시간에는 토론, 실습 등

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플립드(Flipped)러닝 등 토론식 강의를 확대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시작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공과대학 모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설계와 전공분야 활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학생들에게 인기인 개방형 학습공간 ‘K-큐브’를 비롯해 토론형 첨단 강의실, 대형 전산실습실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와 개방형 제작실습 환경인 ‘테크 공작소’ 등도 지속 확대기로 했다.

김선주 건국대 공과대학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모듈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을 가능케 하는 ‘융합-모듈 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취업만 되기를” 구직자 5명 중 2명 목표기업 없다

구직자 3612명 대상 설문조사
“명확한 목표 잡고 구직 임해야”

올해 하반기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 5명 중 2명은 취업 목표 기업을 정하지 않고 어디든 취업만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사람이인 구직자 3612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취업을 원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6%는 ‘취업만 되면 어디든 상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소기업’(20.9%), ‘중견기업’

(16.1%), ‘공기업/공공기관’(12.8%), ‘대기업’(9.2%), ‘외국계기업’(3.4%) 순이었다.

‘취업만 되면 어디든 상관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40.4%)이 남성(32.5%)보다 많았다.

기업 형태가 어디든 상관없다고 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해서’(47%)가 가장 많았고, ‘길어지는 구직활동에 지쳐서’(35.7%),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20.9%), ‘목표 기업을 잡아도 들어가기 힘들어서’(15.5%),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13.4%) 등이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취업이 어려워 구체적인 목표 기업이나 직무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입사에만 집중하는 구직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접근은 ‘묻지마 지원’이나 조기 퇴사로 이어져 다시 구직자로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명확한 목표를 잡고 구직에 임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과 성공적인 커리어 관리 등 진정한 취업 성공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다골프멤버십 보다 더 좋은 4인 무기명은 없다!

회원권 1위 기업! 동아회원권에서 직접 보장합니다.

- 다골프멤버십 상품안내 -

* 모든 상품 부가세 별도

6,500만원 그린피 4인 특별대우

법인 맞춤형 상품

기간 3년 / 무기명 4인
총 150팀 / 년 50팀
월 5팀 (주말3팀 + 주중2팀)

1,100만원
그린피 4인 특별대우
주중전용
기간 2년 / 무기명 4인
총 40팀 / 년 20팀 / 월 2팀

1,650만원
그린피 4인 특별대우
혼합형 I
기간 2년 / 무기명 4인
총 60팀 (주중2팀=주말1팀)
년 30팀 / 월 3팀

3,300만원
그린피 4인 특별대우
혼합형 II
기간 3년 / 무기명 4인
총 120팀 (주중2팀=주말1팀)
년 40팀 / 월 4팀

5,000만원
그린피 4인 전액면제
VIP 주말전용
기간 2년 / 무기명 4인
총 60팀 (주말기준) / 년 30팀 (주말기준)
월 3팀 (주말기준)

| 다골프멤버십 상품 하나로 전국골프장 · 해외 명품골프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법인체 특별 맞춤형 상품

예) 월 주말6팀, 주중3팀
월 주말4팀, 주중2팀 등
※ 상품구성 및 가격은 별도문의 바랍니다.

기업단체 및 월 단체팀 상품 별도문의

※ 모임 및 행사의 특성에 맞게 맞춤 설계해 드립니다.
※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동아회원권그룹은 골프문화 활성화를 위해 KPGA · KLPGA 등 각종 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MAINBiz
[중소기업청 인증 혁신기업]
MainBiz 인증



HiSeoul
[서울시 선정 우수기업 브랜드]
하이서울기업 인증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장 점유율
1위



회원권
대표 브랜드

갈 의 (02)515-6699
회 원 권 매 (02)538-1666



※ 전국지사망

서울본사 (02) 538-1666 / 경기지사 (031) 709-1666 / 천안지사 (041) 414-3456 / 충청지사 (042) 476-1666 / 대구지사 (053) 767-1666 / 부산지사 (051) 464-1666 / 광주지사 (062) 716-8888 / 호남지사 (061) 803-1234



NH농협은행, 마늘농가 지원 고객 사은행사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에서 유운대 기업투자금융부 부행장이 고객들에게 마늘을 선물하는 등 최근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생산농가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본점영업부에서는 간마늘 1Kg 1000봉지를 고객들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늘 소비촉진의 의미를 전파했다. (왼쪽부터)이정환 본점영업부장, 김묘영 외환사업부장, 유운대 부행장, 강대진 기업고객부장, 이현구 투자금융부장. /농협은행



인터컨티넨탈, 유니세프에 '동전모으기' 기금 전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지난 2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세계 각국 지폐 및 100kg 이상 동전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금은 양 호텔 1층 로비에 운영 중인 모금함의 3년치 모금액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이다. /인터컨티넨탈



흥앤쇼핑 '경영학자 선정 최우수경영대상' 수상
흥앤쇼핑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발 벗고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흥앤쇼핑은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제 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흥앤쇼핑 최홍삼 대표(오른쪽)가 김용준 경영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앤쇼핑



한돈자조금-해밀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맞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1일 강원도 홍천에서 해밀학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순이 해밀학교 이사장(왼쪽부터), 한돈 명예홍보대사 신인상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광소 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는 걷기행사

한국관광공사는 SNS 인플루언서, 작가 등과 함께하는 테마형 걷기행사 '우리 같이 걸을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층을 두루 사로잡기 위한 맞춤형 여행코스 홍보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평소 만나고 싶었던 여행·운동 분야 인플루언서, 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각기 다른 테마를 주제로 여행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25일 첫 여행은 '길 위에서 마주친 바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여행전문 SNS 인플루언서인 청춘유리, 서이룬 부부가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해파랑길을 걷는다. 참가 희망자는 공사가 운영하는 '두루누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원하면 된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회 10~20명의 참가자를 추첨해 무료로 진행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남성 성형'의 모든 것



홍중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그저 잘생긴 외모보다 볼수록 매력 있는 호감형 인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 일부를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경우 수입의 30% 이상을 외모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나이보다 젊고 호감 가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피부관리, 두피관리, 다이어트, 화장품, 성형수술, 미용성형수술 등에 적잖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남성들을 일컫는 '그루밍(grooming)족'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남성 성형의 특징은 심미적인 측면은 물론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원코(매부리코)', '안검하수', '비중격만곡증', '주걱턱', '무턱', '눈꺼풀 처짐' 등이 대표적인 예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처진 눈꺼풀을 장기간 방

치하면 노안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눈꺼풀이 겹치는 부위가 짓무르거나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처진 눈꺼풀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눈꺼풀을 치켜뜨는 습관이 생겨 이마 주름을 유발하거나 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어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고나 외상, 외부 충격으로 휘어진 코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코뼈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 비염, 축농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코뼈가 부러지거나 휘어진 경우에는 '원코교정술'을 통해 콧대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흰 코를 교정할 때에는 코뼈뿐만 아니라 코 안쪽의 비중격연골도 함께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코의 휘어짐 정도가 심하다면 외측 절골술을 통해 코뼈를 바로 잡고 비중격성형술을 시행하여 휘어진 비중격연골을 함께 교정해야 한다. 대부분 코뼈가 휘어지면 비중격연골도 함께 휘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술 후 호흡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코막힘 등을 유발하는 비염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 안에 남는 자가 비중격 연골을

코 보형물로 사용하면 더욱 아름답고 또렷한 코라인도 연출할 수 있다.

반면 '주먹코'라 불리는 복코는 넓고 뭉툭하게 퍼진 코끝을 모아주어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방성 코끝 성형으로 비주(코기둥) 부분을 절개하여 퍼진 코끝개 연골을 모아주면 되고, 긴코나 화살코는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이나 균형이 맞지 않아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단점이 있어 연골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코끝교정술'을 시행해야 한다.

코끝교정술을 시행할 때 코끝이 아래로 향했다면 코기둥을 비중격 연골에 고정시켜 날개연골을 위쪽으로 배치해주면 되고, 비중격 연골이 아래로 내려온 경우 연골이나 코끝을 잡아당기는 근육 일부를 절제해주면 된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얹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염증 및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 음주, 사우나, 운동 등은 약한 달 동안 피해야 한다. 또 생리나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출혈이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우리금융,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그라운드X와 업무협약 체결
지속가능 협업 모델 창출 추진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원철 우리금융지주 디지털총괄 겸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라운드X는 카카오가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계열사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통해 LG전자, 넷마블, 유니온뱅크 등 국내의 대표기업과 함께 블록체인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그라운드X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우리카드는 그라운드X의 기술지원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원철(오른쪽) 우리금융지주 디지털총괄 겸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이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라운드X가 추구하는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에 공감한다"며, "우리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접목해 고객의 금융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클레이튼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7월 SKT·KT·LGU+·삼성전자·KEB하나은행·코스콤 등 6개사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 및 기존 금융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공영전통 예술과장 윤태욱 △소통정책과장 이선영 △소통지원과장 김미경 △스포츠산업과장 권도연 △정보화담당관 이종민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서정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 협상과장 박재훈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유승주

부음

- ▲김정식(전 웅진해피몰 대표이사·전 웅진세라믹 대표이사)씨 별세, 김한수(아이진) 책임연구원·김진수(삼성전자 대리)씨 부친상, 권호진(삼성서울병원 책임병리사)씨 시부상

= 20일 오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02-3410-6917

▲장근찬 씨 별세, 권호석(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씨 장인상 = 20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33-343-1444

▲김선국 씨 별세, 오익환(경향신문 인천논현지국장) 씨 장모상 = 21일 오전 1시, 청기와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32-583-4444

외곽에 머물던 이케아, 도심 속으로... 기흥·동부산에 점포

이케아 코리아 FY20 캠페인 간담회

도심형 점점으로 접근성 확대
온·오프서 동일 경험제공 노력

“이케아(IKEA)는 전생산과정의 가치 사슬을 최적화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케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2020년에는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 ▲지속가능성 향상에 주력하며 멀티채널 전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21일 열린 ‘이케아 코리아 FY20 브랜드 캠페인 발표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회계연도를 맞아 2019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신규 브랜드 캠페인 ‘깨워요, 멋진 날!’을 소개했다.

이날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광명점과 고양점, 이커머스 채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

/이케아 코리아

널에 보여주시는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5% 성장한 5032억원의 매출로 2019년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회계연도 마감은 8월 31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연간 총 매장 방문객수는 850만명을, 이커머스 채널은 런칭 1년만에 방문객 38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의미있는 수치를 달성했다”고 2019년 성과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다양한 고객 접점 확대를 접근성과 편

의성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현재 광명점, 고양점 2개 매장을 운영 중인 이케아 코리아는 오는 12월 12일, 국내 세 번째 매장인 이케아 기흥점을 오픈한다. 또 내년 1분기 중 이케아 동부산점이 문을 연다.

아울러 이케아가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테스트 중인 도심형 매장을 내년 회계연도 중 한국에서도 처음 선보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케아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한다.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이전에는 도심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매장으로만 이케아를 만났다면, 앞으로는 고객과 만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며 “(전세계적으로)규모는 작지만, 갖출 것은 모두 갖춘 도심형 매장을 열고 있고, 도심형 매장보다 더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 이케아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현장구매는 불가하지만, 고객맞춤 솔루션을 제안하고 설계해준다”고 말했다.

편의성 향상면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인맞춤화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한 통합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내년 오픈하는 기흥점과 동부산점을 방문하면, 디지털을 다각화로 활용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이케아는 글로벌 선도 지속가능성 기업으로서 한

국에서도 환경친화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0년 회계연도 신규 브랜드 캠페인인 ‘깨워요, 멋진 날!’을 소개했다. 소비자 각자의 연령이나 주거형태,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침실 및 수면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다는 것에 착안해 홈퍼니싱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케아 코리아는 서울 강남역에서 ‘깨워요, 멋진 날!’ 팝업 전시 공간(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0)을 운영한다.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좋은 잠을 위한 홈퍼니싱 요소와 이를 반영한 침실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이케아는 1943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홈퍼니싱 기업이다. 멋진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 이들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 '델라라나', 메가 브랜드로 키운다

브랜드 '델라라나'·'S' 하나로 통합
캐시미어·무스탕 등 300여종 선보

신세계백화점이 자체 여성복 브랜드 '델라라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메가 브랜드'로 키운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브랜드 '델라라나'와 'S'를 '델라라나' 하나로 통합하고,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보브', '스튜디오 톰보이'와 같은 메가 브랜드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측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여간 캐시미어와 오피스룩 전문 브랜드로서 각각의 시장성과 상품력이 검증된 만큼 패션업계에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판단해 통합브랜드로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침체된 여성복 시장 상황에서도 수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메가 브랜드를 쏟아낸 신세계그룹의 제조 역량, 유통 노하우를 비춰볼 때 '델라라나'의 메가 브랜드 타이틀도 수년 내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로 첫 선을 보인 '델라라나'는 상품 기획·디자인·제작·판매·브랜드까지 모든 과



델라라나 강남점 매장.

/신세계백화점

정을 신세계가 직접해 명품 못지 않은 고품격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하며 고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해마다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를 넘나드는 고신장세를 이어왔으며 올 상반기에도 50%에 달하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선보였던 컨템포러리 프로젝트 브랜드 'S' 역시 3040 '일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침체에 빠진 여성 비즈니스 패션 장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델라라나'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수준의 최고급 캐시미어, 여성 정장, 무스탕, 퍼(Fur) 등

3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이는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로 재탄생한다.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품의 원사부터 디자인·제작 과정을 국내 여성복 수준이 아닌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으로 차별화했다.

먼저 니트류는 해외 유수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담당하는 이탈리아 현지 공방에서 생산해 최고급 캐시미어 브랜드 '로로피아나'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을 자랑한다.

수트·재킷 등 오피스룩 상품 역시 신축·통풍이 우수한 우븐 소재를 주로 활용해 '데일러링(재단)의 본고장'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작한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추석세트에 '친환경 포장재' 적용

완충패드·아이스팩 등 소재 교체

현대백화점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친환경 포장재 도입에 앞장선다. 과일 선물세트의 완충 패드를 '종이 소재'로 바꾸고, 정육·생선 등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아이스팩(보냉재)도 '100% 물로 만든 제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올 추석부터 정육·생선·청과 등 주요 명절 선물세트의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사과·배 등 과일 선물세트의 완충 패드(과일 윗부분이 상자와 부딪혀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부 포장재)를 기존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 소재에서 '종이' 소재로 바꾼다.

또한 올 설 명절 일부 과일 선물세트에 시범 도입했던 종이 소재의 '고정재(상자 내부의 과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틀)'도 전체 과일 선물세트로 확대, 적용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과일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완충 패드(개당 11g)와 고정재(개당 66g)를 종이 소재로 바꾸면 절감할 수 있는 플라스틱량만 연 3.9톤에 이른다”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종이 포장재 적용한 과일 선물세트./현대백화점

량 약 9.1톤을 줄여 30년산 소나무 1,4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한다. 먼저, 화학 성분이 포함된 기존 '아이스팩' 대신 '100% 물로 만든 아이스팩'으로 바꾼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존 아이스팩과 달리, 물 아이스팩은 내용물인 물을 비워낸 뒤 외부 포장재를 분리 배출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홍정란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상무)은 “사과·배 등 과일을 감싸는 완충재, 멀치를 담은 트레이(그릇) 등에도 기존 폴리프로필렌(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를 개발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두꺼비 한방울잔' 한정판매

참이슬 두꺼비가 한방울잔에 빠졌다. 하이트진로는 한방울잔의 업그레이드 버전 '두꺼비 한방울잔'을 출시하고, 한정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두꺼비 한방울잔은 참이슬의 상징 '두꺼비'를 섬세하게 표현해 기존 한방울잔에 접합시킨 형태로 술 자리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

한 펀(fun)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해 한방울잔을 선보였다. 판매 소평몰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한방울잔 총 8000개가 완판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재판매 요구가 이어져 자 새로운 한방울잔을 기획하게 됐다.

두꺼비 한방울잔은 기존 한방울잔안에 초록색 두꺼비 형상의 잔이 겹쳐진 형태로, 술을 따르면 두꺼비 형상에 술



이 채워지는 시각적인 요소가 눈길을 끈다. 특히 잔 속의 두꺼비 형상은 기존 소주업계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유리 소재를 활용해 섬세하게 작업해 차별화했다.

/박인용 기자

'처음처럼', 여름 스페셜 마이라벨 이벤트 인기

롯데주류 '처음처럼'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마이라벨'의 여름 스페셜 라벨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처음처럼 마이라벨'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퍼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연인처럼', '친구처럼' 등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문구를 담아 만드는 소비자 맞춤

형 소주 라벨이다.

라벨을 즉석에서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나 직접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름 스페셜 라벨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처음처럼'을 상징하는 '새싹'과 '까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계절감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바이오오케스트라에 50억 투자

종근당홀딩스, 치매 치료제 개발

마이크로RNA 기반 바이오 치매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보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박차

종근당홀딩스는 바이오오케스트라와 협약을 맺고 마이크로RNA를 기반으로 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및 진단기기 개발에 50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홀딩스는 바이오오케스트라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50억원에 매입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 파킨슨과 루게릭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오케스트라는 RNA 신약개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기업으로 마이크로RNA 간섭 기술을 활용해 알츠하이머형 치료제 BMD-001를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RNA는 생물의 유

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RNA로 유전자 정보전달을 억제하고 각 세포마다 발현하는 단백질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BMD-001은 자체 개발 약물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뇌면역세포의 대사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독성단백질을 제거하고, 면역세포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다중 표적 기전의 신약이다.

종근당홀딩스는 바이오오케스트라의 전달체 플랫폼 기술을 비롯해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마이크로RNA 기반의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와 진단기기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물질탐색과 전임상 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편당하는 시리즈 B 투자(물질탐색 및 전임상 단계의 연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

펀딩)로, CKD창업투자과 데일리파트너스, NHN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이엔벤처, LSK인베스트먼트 등 유명 벤처투자사들과 함께 진행된다.

종근당홀딩스 우영수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오케스트라의 우수한 기술과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며 마이크로RNA 기반의 바이오 신약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며 "앞으로 바이오 신약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표는 "종근당의 전략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종근당과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서울신라호텔, 이른 추석에 예약률 쑥쑥

예약 15% ↑... 특별 이벤트 진행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추석연휴에 호텔 객실 예약률이 일찌감치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21일 기준 추석연휴(9월 12~15일)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 예약률에 비해 약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연휴로 인해 고향 방문 후 도심 휴가를 즐기려는 고객들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마지막 여름을 즐기려는 수요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텔업계에서는 추석 연휴에만 선보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홀리데이 와이너리' 패키지를 운영한다. ▲더릭스 룸(1박) ▲더

파크뷰 조식(2인) ▲어번 아일랜드 올데이 입장 혜택(2인) ▲홀리데이 와이너리 입장 혜택(2인) ▲체력장(Gym), 실내 수영장 혜택(2인) ▲신라 베어 키링(1개)로 구성됐다.

'홀리데이 와이너리'는 대면회장 다이너스티에서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7~9시에 열린다. 감미로운 재즈 콘서트와 크래프트 체험 프로그램, 와인 과 마리아주 안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연간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다.

패키지에는 서울신라호텔의 야외수영장 '어반 아일랜드' 올데이 입장 혜택도 포함돼 있다. 온수풀로 운영돼 늦여름~초가를 날씨에도 따뜻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추석 기간 동안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동화약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동화약품이 로이드 인증원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에 대한 통제와 방지 방침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ISO37001 내부 심사원 선임 및 TF 팀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초 사내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해 부서별 부패 리스크 식별 및 분석, 평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

이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BMS(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CP(공정거래



동화약품 박기환 대표이사(오른쪽)와 로이드인 증원 유상근 대표가 지난 20일 동화약품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에는 'ISO37001 도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세경 기자

'기무치 비켜'... 풀무원 '한국산 김치'로 美 공략

미국 대형유통업체 크로거에 입점 1만개 판매처 확보 등 유통망 넓혀

한국에서 생산하는 풀무원의 '한국산 김치'가 미국 전역 대형 매장부터 슈퍼마켓까지 1만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풀무원식품은 풀무원 김치가 미국 유통업체인 크로거(Kroger)에 입점, 글로벌 최대 유통사인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현지 양대 유통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 1만개 판매처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익산 '글로벌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풀무원 김치는 지난 6월 월마트 3900개 매장과 미국 동부 유통 강자 퍼블릭스(Publix) 1100개 등 5000개 매장에 입점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형유통인 크로거와 세이프웨이(Safeway), 푸드라이온(FoodLion) 등 추가로 5000개 매장에 더 입점해 미국 내 총 1만개 매장에서 한국산 김치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특히 풀무원은 미국 총 20여개 유통사와 협의하면서 대형 할인점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미국 대도시부터 카운티(County), 타운(Town) 등 지역 마을 단위가



지 한국산 김치를 입점시킨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김치를 판매할 여건이 갖춰진 점포 수는 약 2만개 정도다. 이미 절반가량 입점에 성공한 풀무원 김치는 더 나아가 매장 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풀무원 김치가 미국에서 통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인 '한국산 김치' 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저가 김치, 일본의 기무치 등 한국 전통김치와 특성, 품질에 차이가 큰 현지 생산 제품이 시장에 난입하는 가운데, 풀무원은 우리의 김치를 제대로 바르게 알리겠다는 포부로 지난 5월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글로벌김치공장을 준공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풀무원의 '한국산 김치' 전략은 원료 산지 및 생산지가 중요한 발효식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김치는 온도 및

숙성도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현지 생산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김치는 대표 한식이자 발효식품으로서 국내 생산이 중요하다.

우선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품종과 생육환경이 나라마다 달라 한국 김치 본연의 맛을 해외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배추는 한국 육종학의 아버지 '故 우장춘 박사'가 국내 환경에 맞게 개량한 품종으로 해외 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하더라도 기후와 토양 등 생육 환경이 달라 국산 배추, 무와 맛 차이가 난다.

또한 발효식품인 김치는 숙성과정에서 토양과 공기 중의 토착 미생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김치를 생산하더라도 국산 김치만의 발효미와 감칠맛을 내기 어렵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온라인서도 360도로 꼼꼼하게 쇼핑"

엘롯데 '360도 상품 기획전'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엘롯데가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엘롯데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상품의 모든 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360도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360도 상품 기획전'에서는 상품을 다

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의 단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상품을 360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신원선 기자

빈폴스포츠, 2030 감성 담은 '액티브 라인'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스포츠는 올 가을·겨울(F/W) 시즌 핵심 상품으로 젊은 감성의 패셔너블한 '액티브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빈폴스포츠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목하고 있는 운동과 웰니스 트렌드를 고려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B 트랙(B.TRACK) 트레이닝 시리즈를 출시했다.

러닝 트랙을 연상케하는 새로운 로고와 액티브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트랙 점퍼, 크롭 후드, 조거 팬츠, 티셔츠, 쇼트 팬츠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부드러운 촉감의 이중지 원단을 사용해 땀 흡수력을 높이는 한편, 보온력까지 챙겼다. 또 스트레칭성 소재를 사용해 가벼운 조깅부터 활동성을 필요



로 하는 액티브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서 기자

JW메디칼 '국제병원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JW메디칼이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주요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메디칼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에서 ▲3D 유방촬영기 ▲64채널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3.0T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디지털엑스레이 등 총 8개의 최첨단 영상진단 의료기기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개되는 3D 유방

촬영기 '쓰리디멘전스(3DIMENSION)'는 서양인에 비해 조직이 치밀한 한국 여성 환자를 위한 최적의 유방암 조기진단 장비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해 2D 제품 대비 유방암 발견율을 40%(JAMA논문 인용)까지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곡선형태의 패들을 적용해 유방 압박 시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통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JW메디칼은 CT, MRI, 초음파 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등 다양한 영상진단장비도 소개한다. /이세경 기자

KT&G-독도재단, 외국인 유학생들과 독도탐방

대구·경북지역 유학생 70여명 참여
현지 방문·박물관 견학 등 독도 알리



KT&G는 재단법인 독도재단과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독도에서 '사랑해요 독도, 사랑해요 대한민국' 행사를 진행했다. /KT&G

KT&G와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독도에서 '사랑해요 독도, 사랑해요 대한민국'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70여명은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먼저 첫 날에는 독도문제 전문가인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특강을 듣고, '도전 독도 상상발' 퀴즈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도 관련 지식을 쌓았다.

20일에는 대한민국 최동단인 '독도' 현지 방문과 함께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을 견학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공헌활동 플랫폼인 'KT&G 상상유니브'가 진행

하는 'I ♥ 독도' 스피치대회를 통해 독도를 보고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마지막 날에는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안용복기념관 등을 답사한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독도를 널리 알리고 자 금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LS·DLS가 편한 투자라고?



기지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몇년전 프라이빗뱅크(PB)를 통해 추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적이 있다.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보단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단 말에 PB가 추천한 제안이었다. 여유자금이라고는 하나 2년 뒤 전세금 증액에 대비한 용도니 원금을 까먹어서는 절대 안되는 돈이었다.

기초자산은 당시 유행이었던 홍콩H지수를 포함해 유로스톡스(EUROSTOXX)50과 코스피200이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던 때라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PB는 원금 손실이 시작되는 조건이 기준가 대비 55%나 지수가 반토막이어나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홍콩H지수는 1년 뒤 불가능할 것 처럼 보였던 하락률 50%를 기록했고, 녹인(Knock-in·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로는 매일 중국 증시를 확인해야 하는 마음 불편한 날들이 이어졌다. 50% 하락할 때까지 수익이지만 일단 녹인 구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지수 하락률이 그대로 내 손실이

된다. 그제서야 연 6% 수익 내자고 원금을 손쉽게 반토막 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어리석은 투자를 후회했다. 지수 반등에 결과는 약속된 수익을 챙긴 '해피엔딩'이었지만 다시는 ELS를 쳐다보지 않기로 했다.

몇년마다 되풀이되는 악몽만 양이벤엔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과 이를 담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원금을 절반 이상, 많게는 거의 다 날리게 됐다. 지수 연동 상품은 그나마 각국의 경제상황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금리 연계 DLS는 예상한 포지션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손실이 불어나는 초고위험 구조였다.

ELS에서 손실이 날 때마다 감독당국은 대책을 내놨다.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확인했는지 자필로 서명케 하고, 고령 투자자에게는 녹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은행 측이 투자자 녹취를 유난히 강조한 이유다. 투자설명을 들었냐고 한 말에 '네'라고 답했을 뿐 판매직원들이 독일국채를 강조하며 절대 안전하다고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을 챙겨 녹음한 투자자가 어디 있을까.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smahn1@metroseoul.co.kr

차에 깔린 할머니 구조한 SK매직 직원 표창

SK매직은 충청물류 설치마스터 4명이 교통사고로 차에 깔린 할머니를 구조해 대전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면도에서 한 남성이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었다. 할머니는 사고 직후 하반신이 차에 깔려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SK매직 충청물류센터 소속 설치마스터 4명

이 승용차를 들어 올려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에선 지난 19일 신속한 구조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SK매직 설치마스터 윤석화, 손흥연, 김표, 이호경 씨에게 표창장과 시민경찰뱃지, 포돌이 인형을 포상했다. SK매직서비스도 의료운 구조활동을 펼친 이들 설치마스터 4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매직은 충청물류 소속 설치마스터 4명이 대전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SK매직 김표, 이호경, 황윤하 대전경찰청장, 손흥연, 윤석화 설치마스터. /SK매직

오늘의 운세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지손의 초대로 하루가 즐거울 날. 48년생 외부활동을 자제. 60년생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 72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지니 침묵.
- 소** 37년생 개띠와의 거리가 순조롭게 풀린다. 49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새로운 근심이 생긴다. 61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나의 허물도 드러난다. 73년생 약간의 머구름이 끼어 있을 뿐. 85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로 과소비에 유의.
- 호랑이** 38년생 웃장 정리하는 취미를 가져보자. 5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62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들의 시선을 받는다. 74년생 내가 행복할 것이 모든 행복의 첫걸음. 86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
- 토끼** 39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51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다. 63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7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 용** 4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아예 포기. 52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64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6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88년생 의지력이 약한 것을 보완.
- 뱀** 4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53년생 자식의 어려움을 알아줘야 한다. 65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77년생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새아침이 온다. 89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 말** 42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54년생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버려둬라. 66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78년생 매사 귀찮고 심드렁한 날. 90년생 배움은 끝이 없다했으니 도전.
- 양** 43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55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67년생 오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9년생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다. 91년생 먼저 이해하고 상대를 설득 시켜라.
- 원숭이** 44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도 있다. 56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 68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80년생 작게 존중해줘도 90%의 마음을 얻는다. 92년생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라.
- 닭** 45년생 의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7년생 모심으려 할 때는 정화를 심어야 한다. 69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81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 93년생 동료와의 의견충돌을 조심.
- 개** 4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58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0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니 북병을 주의. 82년생 진실로 대하면 통한다. 94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다.
- 돼지** 47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59년생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 71년생 재활용으로 낭비를 줄여보자. 83년생 가족과의 화목이 새로운 힘을 생기게 한다. 95년생 경쟁자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김상회의 四季

세상을 이롭게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하도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니 뉴스를 보기도 겁이 난다고 한탄하는 어느 노보살님의 탄식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럴 때 필자는 개인들 각자가 짓고 있는 업도 문제지마는 함께 짓는 공업(共業)도 생각해보게 된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도 우리 모두의 공업에 해당이 된다. 지구 곳곳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쓰레기가 등장했지만 지금은 온통 일회용품 일색인 시대라 집안은 물론 집 밖 여기저기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물건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우리 자신의 몸에도 해로운 뿐더러 공기오염 식수오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산업에너지로 인해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마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대석학이신 탄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핵으로 이해 인류는 큰 흥역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주역에 근거하여 당대의 주요 현안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적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였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진이나 해일 같은 큰 자연재앙으로 인해 지구는 흥역을 치를 것이란 것이 요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구 지축은 23.5도 기울기에서 직각으로 바로 설 것이며 그 과정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만큼은 핵을 멀리하라 말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세계의 정세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참으로 복잡다단하게 굴러가지만 천지자연만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흘러간다. 곳곳의 천재지변이나 재앙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바로 받고 있는 것이니 누구 탓하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6		8			
3	1			7		6		
9	3					1		
6	5	3	2			9		
1	2			6		7		
2	7			4		5		
8		1	5					3
	1	4			9	8		

5		7		8			3		2
	8	4	3			1	7	5	
	4								9
	5	1	6						3
				2			6		
	1	6	7		3				
2		9		1		5			3

스도쿠 정답								
9	2	8	6	4	1	7	5	3
7	4	1	2	5	1	9	6	8
1	5	6	7	8	9	1	4	2
5	1	4	9	6	7	2	8	1
8	6	7	1	2	4	5	1	9
2	1	9	8	1	5	4	7	6
6	9	5	1	7	8	1	2	4
1	8	1	4	9	2	6	5	7
4	7	3	5	1	6	8	9	1
4	9	5	7	1	8	6	1	2
1	8	1	2	9	6	5	4	7
6	2	7	4	5	1	9	1	8
1	1	9	5	7	2	8	6	4
7	4	2	8	6	9	1	5	1
5	6	8	1	4	1	2	7	9
9	5	1	1	2	4	7	8	6
8	7	6	9	1	5	4	2	1
2	1	4	6	8	7	1	9	5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71호



에몬스가구 김경수 회장(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부터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인증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에몬스, 생활가구 1위 등극

에몬스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생활가구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Korean Standard Premium Brand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로 브랜드의 강점, 약점 및 경쟁적 위치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가치까지 진단해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지수다.

올해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총 144개 부문의 42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84만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편익, 마켓 리더십, 브랜드 애호도, 브랜드 사회적 책임 등 6개 차원의 브랜드 에퀴티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에몬스가구부는 생활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1위 기업에 뽑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노비즈協-경기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맞손'

이노비즈협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등 기반마련 협력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취득 확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상호 정보 교류 및 정책 홍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노비즈협회 조홍래 회장(왼쪽)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서울중기청 日 수출규제 中企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에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캐치업 등 통관절차 및 대응방향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에선 전문기관별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상담한다.

상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두루 참가한다. /김승호 기자

“사람-기술 유연하게 잇는 디자인 목표”

여성기업 인터뷰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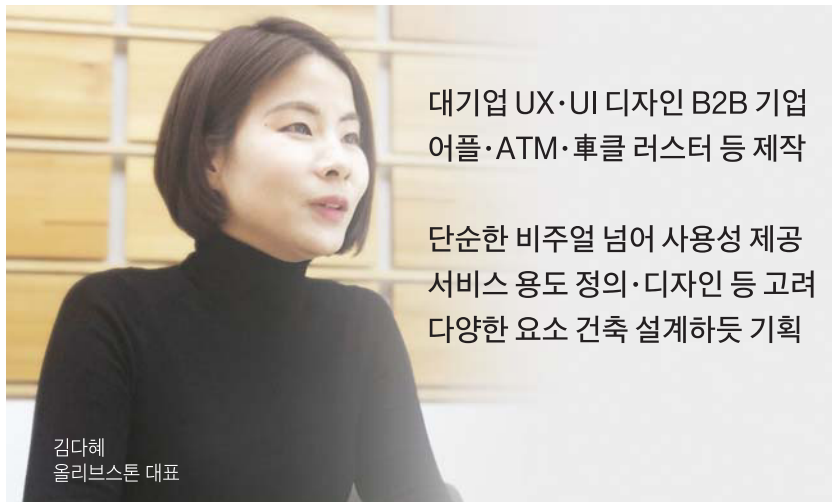
“디자인은 솔루션이에요. 단순히 예쁜 거라고 하기에는 그 설명이 너무 가벼워요. 가끔 고객들을 만나면 ‘A가 예뻐 B가 예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쁘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디자인은 과정입니다. 저희와 클라이언트가 찾아낸 가치를 정리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올리브스톤의 디자인 철학을 묻자 김다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디자인을 ‘예쁘다’로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다. 회사의 철학을 담고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디자인을 만드는 UX/UI 디자인 회사 올리브스톤을 만나봤다.

◆경험을 설계하는 UX/UI 디자인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올리브스톤은 국내 대기업의 UX/UI 디자인을 담당하는 B2B 기업이다. 현재 약 10~15개 협력업체와 일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부터 디지털TV(DTV), 자동차 클러스터, ATM,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UX/UI 디자인을 만든다.

UX(User Experience)는 사용자 경험이란 뜻으로,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나 제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쓰면서 느끼는 경험이다. UI(User Interface)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며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대기업 UX·UI 디자인 B2B 기업 어플·ATM·클러스터 등 제작

단순한 비주얼 넘어 사용성 제공 서비스 용도 정의·디자인 등 고려 다양한 요소 건축 설계하듯 기획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환경을 의미한다. 올리브스톤은 이런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스마트폰의 아이콘 배치부터 앱 메뉴까지 다양한 요소가 UX/UI의 범위에 들어간다.

“각 디바이스의 성향이 중요해요. 자동차에 모바일 용 디자인을 얹으면 없어 보여요. 모바일에 TV용 디자인을 넣으면 해상도와 크기가 달라 쓸 수 없죠. 디바이스의 성향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낼 방법은 경험뿐인 것 같아요. 저희에겐 7년간 다양한 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을 찾는 경험이 쌓여있어요.”

올리브스톤의 이런 노력은 2018년 초 금융기관과 만든 모바일앱과 스마트폰 ATM로 받은 ‘iF디자인 어워드’ UX 부문 본상으로 돌아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컨설팅 회사인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

tional Forum Design)이 주는 상으로 미국의 IDEA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디자인 시상식이다.

◆디자인은 하나의 솔루션

김다혜 대표는 고객사가 가진 성향, 고객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서비스를 통해 풀어나고 싶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리브스톤의 디자인이라 설명한다. 김 대표는 이 세 가지 단서를 하나로 풀어내는 ‘솔루션’이 바로 디자인이라 말한다.

“디자인은 그저 시각적인 것이 아니고 솔루션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고객사가 해당 사업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지요.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비주얼 디자인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UX/UI 디자인의 역할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여 가장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거죠. 예전에는 비주얼 디자인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UX/UI 디자인은 소비자가 사용을 해내는 순간까

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올리브스톤은 디자인·개발·기획자가 한 팀을 이뤄 하나의 디자인을 내놓는다. 약 25명의 인력 중 10명이 디자인, 7~8명이 기획, 나머지가 개발을 맡는다. 김 대표는 약 3년 전부터 개발 인력을 회사에 들였다. 기계 안에서 서비스 동작까지 확인하는 순간까지를 디자인의 개념을 보기 시작하면서다.

“건축 설계와 비슷해요. 처음에 이 서비스의 용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어디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 건축 도면 그리듯 기획합니다. 거기에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집어넣고 포인트를 줘서 매력을 끌어올릴지 디자인 인력이 결정하구요. 거기에 개발 인력이 해당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합쳐져 하나의 앱이 나오게 되죠.”

김다혜 대표는 올리브스톤을 사람과 기술을 유연하게 이어주는 디자인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여러 기술과 솔루션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사용자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는 손에 잡히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연결고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UX/UI 디자인으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목표예요. 올리브나무처럼 유연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단단한 돌(스톤)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일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신보, 복지부 등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맞손

사회공헌활동 확산 도모

신용보증기금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본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지역사

회공헌 인정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공헌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사회공헌 우수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사회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보증심사시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료 할인(보험료의 10%) ▲경영컨설팅 비용 할인(총비용의 10% 수준) ▲기업연수기회 우선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희주 기자

국민연금 해외수탁은행 'SSBT' 전주에 지방 첫 사무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가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소를 통해 해외 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투자지원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이미 서울에 지점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은 국민연금 해외주식·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업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외투자자산미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는 전 세계 100개 국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리, 투자운용, 리서치 및 트레이딩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3월 말 기준 수탁서비스 규모는 32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김성주국민연금이사장은 “국민연금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공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캠코, 부산서 '희망울림 FC' 어린이 축구캠프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 기장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지역 6개 초등학교 학생 약 100명이 참여하는 '캠코 희망울림 FC 3기 축구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5월 캠코 희망울림 FC 3기 어린이 축구단 발대식을 가진 이후 축구복·축구화 등 축구용품을 지급하고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의 전문 코칭스태프가 지도하는 '주 1회 축구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캠코가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와 기장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캠코 희망울림 FC 3기 축구캠프'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네번째줄 가운데)과 부산 지역 초등학교 학생 약 100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해질녘서 동틀 때까지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전국 9개 도시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걸어요”



제 14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하루에 34.1명 자살하는 현실(통계청, 2018)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가는 특별한 캠페인입니다.

삼성생명은 참가자 1명 당 34,000원을 적립하여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합니다.

일 정	서울 2019. 8. 31(토)	대전 2019. 9. 21(토)	광주 2019. 9. 27(금)
	수원 2019. 9. 21(토)	대구 2019. 8. 31(토)	전주 2019. 9. 21(토)
	인천 2019. 9. 21(토)	부산 2019. 9. 21(토)	강릉 2019. 10. 5(토)

코 스 5km / 10km / 34km *지역별 상이

접수방법 2019 사람사랑 생명사랑 캠페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www.walkingovernight.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함평군

함평군 국화동호회, 국화분재 교육 '한창'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21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5기 회원 200여 명이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

전'에 개인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국화분재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국화동호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반 등 각각 4개 반으로 나뉘어 3주마다 국화분재 만들기, 취미 국화 기르기 등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담양군, 돌발해충 방제 작업 팔 걷었다

자체방제단 3개조 방제작업 투입

담양군이 최근 계속된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등의 돌발해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흰불나방은 버즘나무, 뽕나무류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유충이 어릴 때는 실을 토해 잎을 싸고 집단으로 모여서 굵아 먹다가 이후에는 잎

전체에 피해를 주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인근 나무로 옮겨가며 빠르게 피해를 확산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이에 담양군은 유충발생 2학기 도래에 따라 자체방제단 3개조를 투입해 가로수, 공원, 산림의 왕벚나무 등 활엽수류 약 3000여 주의 방제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전남 상반기 인구 1만명 빠져나가

10대, 20대 인구 순유출 가장 많아

올 상반기 광주는 1000여명, 전남은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출됐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순유출 인구는 광주 1001명, 전남 9799명이다.

광주지역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719명), 20대(-823명)는 순유출됐고, 30대(337명), 40대(185명)는 순유입됐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북구(-3727명), 서구(-2263명)는 순유출됐고, 동구

(1412명), 남구(1645명), 광산구(2094명)는 순유입됐다.

전남지역을 연령대로 보면, 10대(-1038명), 20대(-6627명), 30대(-1367명)는 순유출됐고, 50대(497명), 60대(507명)는 순유입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5208명)이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1429명), 구례(-702명), 해남(-623명), 화순(-484명), 영암(-443명) 순으로 순유출됐다. 반면 순천(1천144명), 나주(843명), 고흥(39명), 순천(1천144명), 나주(843명), 고흥(39명)은 순유입됐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전남교육청, 2학기부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확대

전국 최초 전남도내 고교 전면 무상교육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121억 확보
정부 계획보다 무상교육 2년 빨라

농어촌 학생 에듀택시 운영 확대
사립유치원 원아 급식비 지원

올해 2학기 시작과 함께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가 확대 시행된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부터 전남도내 전체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또 농어촌 학생에 대한 에듀택시 운영이 확대되고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한데 이어 2학기에는 고 2, 3학년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계획보다 2년 빠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고등학생들이 수업료 전액, 학교운영지원비 등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지난 6월 도의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관



전남도교육청 전경. /뉴시스

련 예산 121억 원을 확보해 왔다.

지난 5월부터 전남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 에듀택시도 9월 개학과 함께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지난 4개월 동안 운영한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근 에듀택시 확대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에듀택시는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 중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1개 시·군에서 131개 학교 709명이 에듀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입되는 에듀택시는 276대이며 7억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억3200만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협력사

업으로 추진된다. 9월부터는 또 전남지역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93개 사립유치원의 만5세 원아 2822명이며, 이들에게는 한 끼당 2200원 썩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예산은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됐다.

교육청은 전액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비 지원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데 이어 올 1학기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고교 신입생 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다자녀가정의 학생교육비 지원 등 무상교육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어야 한다는 당위 아래, 한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를 이뤄가겠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삭막한 측벽, 자연 풍경으로 '새 단장'

진주폴리텍 재학생들 재능 기부
망경동 지하철도에 벽화 디자인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이하 진주폴리텍) 광고디자인과 재학생들이 진주시 주관 '제7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에 참여해 여름방학기간동안 벽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주폴리텍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자율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여 공공시설물·벽면 등 지역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찾아 벽화 디자인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적인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공공디자인 봉사장소로는 망경동 지하철도 평면교차로에 위치한 60m에 달하는 긴 측벽면이 선정되었다.

벽화봉사에 참여한 광고디자인과 교수 및 재학생, 그리고 진주시민들은



진주폴리텍 광고디자인과 학생들이 그린 벽화

"자연으로의 복귀"를 컨셉으로 약 30일간 한여름 피약벌 무더위 속에서 빛나는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봉사에 참여한 광고디자인과 김00 학생은 "무더위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교수님·친구들과 함께 삭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나눔의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단장으로 위촉된 광고디자인과 권미경 교수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곳곳에서 생동감을 주는 '디자인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진주=류광현 기자 news24@

오늘의 날씨

8월 22일(목) 음력: 7월 22일

수도권 날씨 30~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3 | 해질 / 19:16

백령도 21/26, 파주 21/30, 인천 23/28, 수원 23/29, 평택 23/30, 연천 21/30, 동두천 22/29, 가평 20/29, 서울 23/30, 양평 22/31, 용인 23/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농기원, 김장채소 모종·씨앗 도시민에 무료 제공

김장채소 모종나누기 행사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4일 수원 탑동시민농장에서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수원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김장채소 모종나누기 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이날 직접 선별한 구역배추, 무릉배추, 반청무, 게결무, 뿌리갓 등 다양한 김장채소 모종과 씨앗을 도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토종채소는 오랜 기간 우리 토양과



반청무 / 경기도 구역배추 / 경기도

입맛에 적응한 먹거리로, 다양한 유전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능성, 맛 등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종배추는 특유의 갓 향이 있고 조직이 단단해 김치를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한다. 게결무는 이천과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최근에는 잎을 이용한 시래기, 씨앗을 이용한 기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도 농기원은 토종채소 자원을 수집 발굴해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채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산업] 두산인프라코어
인도네시아 BBI와 MOU
동남아 엔진시장 공략
06



Life

[라이프] 이케아 코리아
도심속으로
기흥·동부산에 점포
11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오디션 방식으로 해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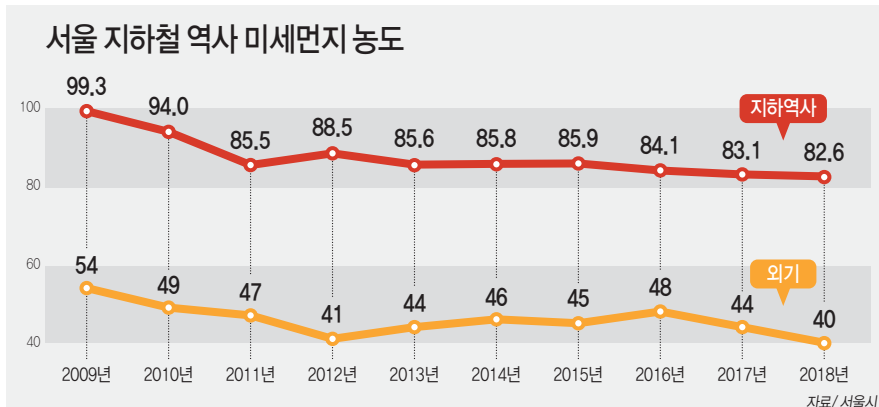
총상금 7.5억 '서울 글로벌 챌린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혁신솔루션 찾아 서울, 전 세계 혁신기술 각축장으로

서울시가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같은 글로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도시 문제의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 경쟁형 R&D인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쟁형 R&D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수의 연구기관이 기술력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 탈락자를 선정한 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포츠 경기의 토너먼트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경쟁 방식과 유사하다.

시는 "최근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



차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단일주제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혁신기술과 융·복합한 개방형 R&D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서울시가 시민의 수요가 많고 난도가 높은 도시 문제를 도전 과제로 제시하면 전 세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시제품 등을 개발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하철, 터널, 한강 교량 등 서울시정 현장이 테스트베드(실험공간)로 개방된다.

시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과 솔루션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최종 우수 제품과 솔루션은 서울시가 공공 구매에 시정에 적용한다.

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상시 플랫폼으로 운영, 매년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대제 서울 글로벌 챌린지 조직위원

장은 "시민 민원의 1순위가 미세먼지"라며 "천만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혁신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17% 감소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09년 99.3μg/m³, 2012년 88.5μg/m³, 2015년 85.9μg/m³, 2018년 82.6μg/m³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개선된 지하철 대기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을 과제로 내년 2월까지 첫 번째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상금은 7억 5000만원 규모다.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9월 9일~11월 22일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지하철 터널·승강장·전동

차 중1곳을 골라 해당 공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제안하면 된다.

총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참가팀 일부가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서면·대면평가를 통과한 제품·솔루션은 2단계에서 실제 지하철 터널(6호선 효창공원역 등 5개역)과 승강장(6호선 이태원역 등 10개역), 2호선 전동차 내부를 실험공간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받는다. 시민도 평가에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테스트베드로 2호선 전동차(초과 차량)를 선정한 이유는 새로운 시설물 부착 시 전동차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폐차 예정인 차량으로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우수 1개팀에 5억원, 준우수 1개팀에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우수 제품과 솔루션은 내년 2월 6일 '2020 미세먼지 엑스포'에서 공개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시장 "불매운동 타깃은 아베 군국주의" 경기도, 택시 3만7000여대 서비스 평가

日 시민단체 '희망연대'와 만남 한일관계 개선방향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이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 야마자키 마코토 국회의원 등을 만나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미래를 향한 연대'를 화두로 만담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한국 시민사회가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지만 그것이 일본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군국주의와 일방주의가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



박원순 서울시장과 21일 일본 희망연대와 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해왔다"며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과 손을 맞잡아준 일본 시민과 시

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에 혐의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내우를 외환으로, 즉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우수법인에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는 올해 7~10월 도내 192개 택시법인과 31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의 총 3만7551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도내 택시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도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우선 택시법인은 '경영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개인택시조합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이중 '경영평가'는 택시법인을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확인한다.

조사요원이 직접 승객으로 탑승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평가'와 하차승객대상 만족도를 조사하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친절도, 차량상태, 적법·안전 운행여부, 택시요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0개 법인과 전년 대비 점수 상승도가 큰 3개 노력우수 법인 총 33개 법인에는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33개 법인(상위 30위 법인 + 노력우수 3개 법인)과 상위 10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에게는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비(건강검진비, 자녀장학금, 가족 여행 지원금)로 사용할 수 있는 7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소 'U헬스존' 설치

직장인 건강관리 공간 보건소 등에 마련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공간인 'U헬스존'을 보건소 등에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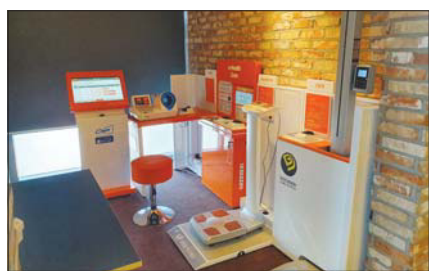
시는 'U헬스존'을 도입해 시민의 대사증후군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U헬스존 방문자는 본인 인증 후 체지방량,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

과는 무인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비만, 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U헬스존은 보건소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헬스케어 업체 (주)헬스맥스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보건



U헬스존 모습. /서울시

소 방문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을 찾아가서 관리할 것"이라며 "U헬스존" 운영으로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에서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 단속을 통해 309건을 적발,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방차 주변에 주·정차시 기존 2배인 8만~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시간 이상이면 9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SAMSUNG

Galaxy Note10 | 10+ 5G

갤럭시 노트10으로 뭔가 하고 싶으세요?

S펜을 돌려서 한 명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을래요

폰에서 편집하던 강아지 영상을
PC에서 계속해서 작업할래요

우리 이모 연주 소리만
더 또렷하게 듣고 싶어요

집에서 하던 PC게임을 밖에
나가서도 이어서 하고 싶어요

2019.8.8 - 8.31

노트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온 당신, 노트10과 함께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노트10의 새로운 광고가 됩니다

검색창에 **갤럭시 노트10과 함께**  를 검색해보세요

· 본 이벤트는 진행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를 참조하세요